

▶ 내신 기출, 독서 비상-하편 ◀

4. 가치를 내면화하는 독서

- (2) 내가 찍고 싶은 사진 (37문제) ----- 1쪽
(3)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 (50문제) ----- 26쪽

5. 세상과 만나는 독서

- (1)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소비자 잉여 (54문제) ----- 63쪽
(2) 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 (53문제) ----- 94쪽
(3)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28문제) ----- 125쪽

6. 정보를 활용하는 독서

- (1) 세계 속의 1등, 양궁 (55문제)----- 149쪽
(2) 인공 지능의 미래, 딥 러닝 (46문제)----- 184쪽
(3) 노블레스 오블리주 (14문제)----- 213쪽

◆해설 -----230쪽

◆빠른 전체 정답 -----246쪽

교재 버전: 2021.10.1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4-(2) 내가 찍고 싶은 사진

■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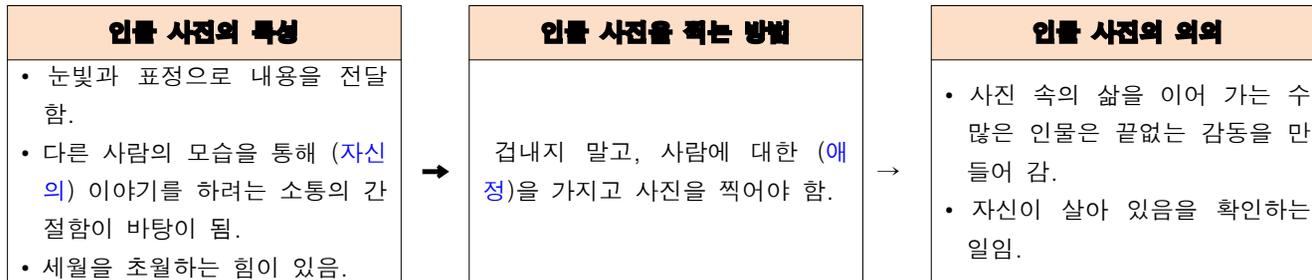
갈래	논설문	성격	분석적, 예시적
제제	내가 찍고 싶은 (사진)		
주제	스스로 발견해 낸 소중한 가치를 담아야 하는 사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 사진과 풍경 사진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진을 잘 찍는 법을 소개함. 사진의 결과물을 하나의 예로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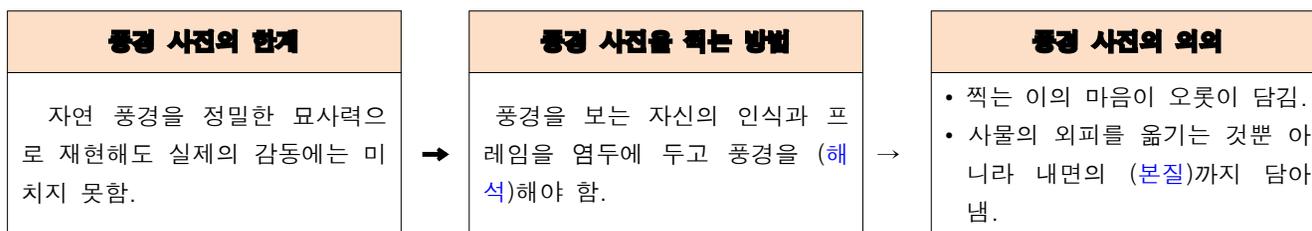
서론	사진을 잘 찍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
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 사진)의 특성과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방법 및 의의 풍경 사진의 특성과 풍경 사진을 잘 찍는 방법 및 의의
결론	스스로 발견해 낸 소중한 가치가 담긴 사진을 찍으라는 조언

■ 포인트

1. 인물 사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2. 풍경 사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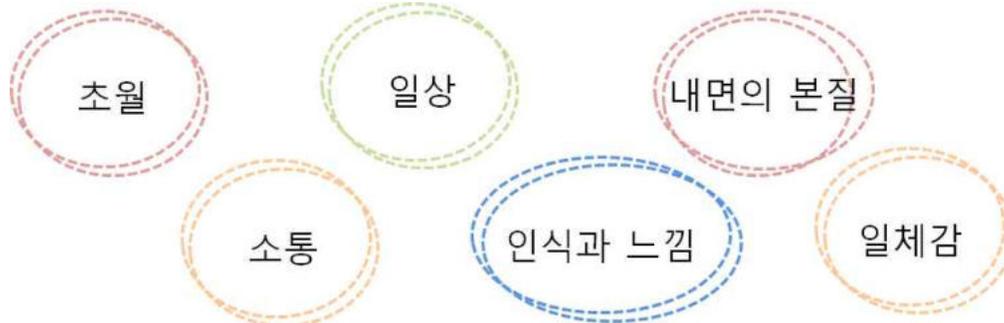


모의심 학습 활동

1 글쓴이가 사진을 잘 찍기 위한 방법으로 강조한 것들을 찾아 표시하며, 이 글의 내용을 파악해 보자.



2 '아래 단어를 참고하여 인물 사진과 풍경 사진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각각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



쓴이는 인물 사진이란 큰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평범한 일상의 희로애락을 포착한 사진이며, 이는 세월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글쓴이는 풍경 사진이란 풍경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느낌을 반영하여 재해석한 사진이며, 내면의 본질까지 드러내려면 사진이 곧 자신이 되는 일체감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입 의미

[113쪽 5~6행]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카메라 기능을 숙지하고 조작법을 능숙하게 익히면 사진을 잘 찍을까?

→ 글쓴이는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카메라 기능을 숙지하고 조작법을 능숙하게 익혀야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며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자들은 이 부분을 읽으며 앞으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전개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13쪽 9~10행]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기술적 지식의 행간을 메워 줄 경험과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다.

→ 글쓴이는 상업 사진이나 전문 사진을 찍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사진을 찍는 데 숙련된 기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기술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는 오히려 잘못된 습관이며, 자신만의 경험과 피사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 기술적 지식이 부족해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다른 사람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113쪽 12~14행] 특별한 업적을 남긴 모든 사람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삶을 이루는 대부분 시간은 반복되는 생활의 조각들로 이루어지지 않던가? 일상의 조각을 모아 붙여 놓으면 커다란 벽화가 된다.

→ 평범한 일상을 작은 모자이크 조각에, 특별한 업적을 커다란 벽화에 빗대어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평범한 일상이 모여 위대한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이다.

[113쪽 16~17행] 이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만들어 주는 소재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들, 사람이다.

→ 글쓴이는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만들어 주는 소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였다. 뒤이어 미국의 한 잡지의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114쪽 5~7행] 이제까지 많은 사진을 찍어 보았지만 끝내 질리지 않는 사진은 사람을 담은 작품이다. 갈등이 있지만 화해와 사랑으로 이겨내는 인간의 삶이야말로 사진으로 표현하고 싶은 가장 매력적인 주제이다.

→ 글쓴이는 사진을 찍으면서 끝내 질리지 않는 피사체는 사람이었다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인물 사진을 찍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인물 사진은 우리의 내면과 삶의 본질을 담고 있으며, 이는 보는 사람에게 위안과 격려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114쪽 15~17행] 사람은 제 모습과 유사한 사람에게 가장 흥미를 보인다고 한다. 사람을 찍은 사진은 단지 타인의 모습을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 사람들은 인물 사진을 찍으며 타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가장 닮은 모습을 포착하여 사진으로 남기는 것인데, 이는 결국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114쪽 20행] 또한 사람을 찍는다는 것은 소통의 간절함을 드러낸다.

→ 소통의 간절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세상과 연결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며, 자신이 보고 만났던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의미이다. 글쓴이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인물 사진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이야기가 담긴 인물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114쪽 26행] 사람을 찍은 사진은 세월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

→ 사진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온갖 기억들이 더해져 그 의미가 더 다양해지고 깊어진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인물 사진의 매력을 세월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115쪽 8~11행] 그렇기에 바로 지금 벌어지는 삶의 순간을 프레임 속에 고정된 사진의 강렬함은 인상적이다. 사진은 순간

4-(2) 내가 찍고 싶은 사진

을 잘라 낸 과거의 시간과 행동을 현재로 되돌려 놓는다.

→ 우리의 일상은 늘 비슷한 듯하지만 매 순간이 다르다. 우리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을 놓치기 쉬운데, 사진에는 그 순간이 포착되어 담겨 있다. 우리가 사진 속에서 미처 눈치채지 못한 많은 것들을 다시 확인할 때 사진은 강렬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115쪽 14~16행] 겁내지 말고 사람을 찍어라. 사람이라는 소재는 마르는 법이 없다. 그러니 사람들을 향해 카메라를 들어라. 그리고 사람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라.

→ 글쓴이는 앞에서 인물 사진의 특성과 인물 사진이 가지는 힘,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글쓴이는 뒤에 인물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구도나 빛의 밝기, 원근감, 렌즈의 사용 등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찍는 사람의 태도, 즉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겁내지 말고 인물 사진을 찍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116쪽 1행] 한편 우리가 인물 사진만큼 많이 찍는 사진이 있다. 바로 풍경 사진이다.

→ 글쓴이는 사람들이 인물 사진만큼이나 풍경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말하며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글쓴이는 사진 공모전에 출품되는 사진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116쪽 6~8행] 그런데 이상하게도 절경을 보고 감탄하며 사진을 찍어 보아도, 찍고 나면 풍경들은 다 비슷하게 보인다. 아무리 자연 풍경을 정밀한 묘사력으로 재현한다 하더라도 실제의 감동에는 미치지 못한다.

→ 글쓴이는 누구나 풍경 사진을 찍으며 느껴보았을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눈으로 본 풍경의 감동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며, 찍어 놓은 풍경 사진은 모두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116쪽 10~12행] 어차피 실제의 입체적인 느낌을 살려 낼 수 없다면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풍경을 보는 자신의 인식과 프레임이다.

→ 글쓴이는 실제 입체적인 느낌을 살려낼 수 없다는 풍경 사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해 풍경을 해석해야 의미 있는 풍경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말한다.

[116쪽 26~28행] 그만큼 사진의 분위기가 독특하고, 눈 내리는 순간이 실재감 있게 표현되었다. 관념의 사진이 아닌 구체적 실체의 사진이라 할 만하다. 누군가 찍었던 방식을 따라한 식상함이 없다.

→ 교과서 117쪽 사진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이다. 글쓴이는 117쪽의 사진이 막연하게 누군가를 따라하거나 풍경을 재현한 사진이 아니며, 구체적 실체의 사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사진에서 사람의 흔적과 체취가 느껴진다고 하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118쪽 9~12행] 카메라의 선택, 대상의 존재감을 표현해 주는 렌즈의 화각, 물리적 거리와 각도, 사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빛의 상태, 찍는 이의 감정 상태 등이 바탕이 되고, 여기에 중요한 하나를 더해야 한다. 자신이 곧 사진이 되는 일체감이다.

→ 사진을 찍을 때에는 카메라와 렌즈 등 사진을 찍을 때의 모든 조건과 찍는 이의 역량을 바탕으로 자신이 곧 사진이 되는 일체감을 더해야 내면의 본질까지 오롯이 담을 수 있다. 글쓴이는 이 모든 역량이 발휘되었을 때 우리는 원하는 느낌과 분위기를 담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말한다.

[118쪽 16~18행]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 보자. 카메라가 없다면 스마트폰도 좋다. 세월이 흐르면 보물이 될 사진, 스스로 발견해 낸 소중한 가치가 담긴 사진을 찍어 보자.

→ 글쓴이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독자들에게 사진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기술적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진을 찍는 이의 마음, 즉 사진을 찍는 태도이므로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 온 마음을 다해 찍어 보자고 말하고 있다.

답답 답답 답답

1.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는 이유는 무엇인가?

타인의 모습을 남기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현재를 발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존재를 세상과 연결하려는 소통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다.

2. 다른 사람의 사진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사의 모든 일은 나 자신에게도 일어났거나 일어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3. 풍경 사진이 실제의 감동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눈앞에 펼쳐진 입체적 공간의 느낌을 이차원 평면인 사진으로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사물의 외피를 옮기는 것뿐 아니라 내면의 본질까지 담아내기를 소망한다.

백지 노트

시험 공부의 마지막은 백지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써 보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별한 업적을 남긴 모든 사람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삶을 이루는 대부분 시간은 반복되는 생활의 조각들로 이루어지지 않던가? 일상의 조각을 모아 붙여 놓으면 커다란 벽화가 된다. 위대한 과학적 발견과 참된 아름다움의 표현 또한 숨겨진 일상의 비밀로 재창조 한 업적들이다.

이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만들어 주는 소재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들, 사람이다. 미국의 한 잡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사진을 가장 많이 찍는지를 조사했다. 답은 사람이었다. 다음 순위로 자연 풍경과 도시, 건물, 꽃 같은 개별적 관심사로 이어졌다. 물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우리에게 사람보다 더 큰 관심사가 있을 수 있을까?

(중략)

사람은 제 모습과 유사한 사람에게 가장 흥미를 보인다고 한다. 사람을 찍은 사진은 단지 타인의 모습을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어쩌면 사람을 찍는 일은 사진에 투영된 자아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일지 모른다. 결국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을 찍는다는 것은 소통의 간절함을 드러낸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사람을 찍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과 연결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이 보고 만났던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찍지 못하는 인물 사진,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인물 사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인물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

사람을 찍은 사진은 세월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온갖 기억들이 사진에 덧입혀져, 사진의 의미는 더 다양해지고 깊어진다. 사진에서 읽어 낼 수 있는 내용과 감동이 끊임없이 샘솟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내가 찍은 소년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다. 첫 키스의 떨리는 순간을 담은 연인의 사진, 스포츠 경기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사진 등. 인간사의 모든 드라마는 나에게도 일어났거나,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우리가 인물 사진만큼 많이 찍는 사진이 있다. 바로 풍경 사진이다. 사진 공모전 출품작의 대부분도 풍경 사진으로 채워진다. 봄이면 꽃, 여름에는 바다, 가을이면 낙엽 진 숲속, 겨울에는 눈 내린 산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올라온다. 1년 사계를 통틀어 꾸준히 등장하는 바닷가 일출 장면과 석양의 노을 풍경 또한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절경을 보고 감탄하며 사진을 찍어 보아도 찍고 나면 풍경들은 다 비슷하게 보인다. 아무리 자연 풍경을 정밀한 묘사력으로 재현한다 하더라도 실제의 감동에는 미치지 못한다. 애초에 눈앞에 펼쳐지는 입체적 공간의 느낌을 이차원 평면인 사진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실제의 입체적인 느낌을 살려 낼 수 없다면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풍경을 보는 자신의 인식과 프레임을이다. 다시 말

해 풍경의 재현이 아니라 해석인 것이다. 방법은 분명해졌다. 풍경 사진은 더 많이 생각하고, 자신의 해석을 더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사진이 된다.

(중략)

이렇듯 모든 것은 대상이 아니라 찍는 사람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사물의 외피를 훑기는 것뿐 아니라 내면의 본질까지 담아내기를 소망한다. 그러려면 원하는 느낌과 분위기가 담길 때 까지 미세한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때 찍는 사람의 모든 역량이 동원된다. 카메라의 선택, 대상의 존재감을 표현해 주는 렌즈의 화각, 물리적 거리와 각도, 사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빛의 상태, 찍는 이의 감정 상태 등이 바탕이 되고, 여기에 중요한 하나를 더해야 한다. 자신이 곧 사진이 되는 일체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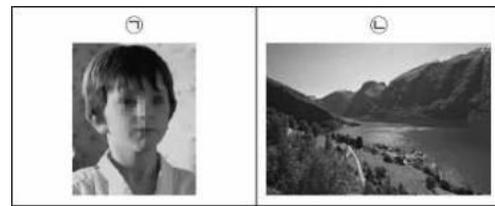
대전송전고등학교 (대전)

1. 윗글에 쓰인 설명방법이 아닌 것은?

- ① 문제 상황의 발생 과정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속성을 지닌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사례를 통해 소재와 관련한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실제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전송전고등학교 (대전)

2. 윗글을 고려하여 아래 사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사진 속 아이의 본모습을 숨기고자 하는 욕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② A를 본 사람은, 사진 속 상황과 유사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릴 것이다.
- ③ A는 세월이 지날수록 새로운 사진들에 의해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갈 것이다.
- ④ B에 드러난 대상의 본질을 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이다.
- ⑤ B와 같이 입체적 공간의 느낌을 이차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풍경의 재현이 가장 중요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카메라 기능을 숙지하고 조작법을 능숙하게 익히면 사진을 잘 찍을까? 상업 사진이나 기술적 완성도가 곧 수준으로 통용되는 전문 영역이면 몰라도 기술을 비법이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기술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는 잘못된 습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기술적 지식의 행간을 매워 줄 경험과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다. 다른 사람을 흉내 내지 말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줄 알아야 한다.

특별한 업적을 남긴 모든 사람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삶을 이루는 대부분 시간은 반복되는 생활의 조각들로 이루어지지 않던가? 일상의 조각을 모아 붙여 놓으면 커다란 벽화가 된다. 위대한 과학적 발견과 참된 아름다움의 표현 또한 숨겨진 일상의 비밀로 재창조한 업적들이다.

(나) 신문과 잡지에 등장하는 사진들을 유심히 보라. 역시나 사람 사진이 대부분이다. 잡지 표지도 대부분 사람 얼굴이 차지한다. 인간이 주는 흡인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신문 기사 속 인물 사진은 눈빛과 표정으로 미처 글로 옮기지 못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고, 확신에 넘친 주장이 과장이었음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 사진에 찍힌 모습으로 내면의 본질을 읽어 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사람은 (A)고 한다. 사람을 찍은 사진은 단지 타인의 모습을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어쩌면 사람을 찍는 일은 사진에 투영된 자아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일지 모른다. 결국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을 찍는다는 것은 소통의 간절함을 드러낸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사람을 찍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과 현정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이 보고 만났던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찍지 못하는 인물 사진,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인물 사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인물 사진을 적고 싶어 한다.

(중략)

아무리 자연 풍경을 정밀한 묘사력으로 재현한다 하더라도 실제의 감동에는 미치지 못한다. 애초에 눈앞에 펼쳐지는 입체적 공간의 느낌을 이차원 평면인 사진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실제의 입체적인 느낌을 살려 낼 수 없다면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풍경을 보는 자신의 인식과 프레임이다. 다시 말해 풍경의 재현이 아니라 해석인 것이다. 방법은 분명 해졌다. 풍경 사진은 더 많이 생각하고, 자신의 해석을 더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사진이 된다.

(다) 이렇듯 모든 것은 대상이 아니라 찍는 사람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사물의 ㉠외피를 옮기는 것뿐 아니라 내면의 ㉡본질까지 담아내기를 소망한다. 그러려면

원하는 느낌과 분위기가 담길 때까지 미세한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때 찍는 사람의 모든 역량이 동원된다. 카메라의 선택, 대상의 존재감을 표현 해 주는 렌즈의 화각, 물리적 거리와 각도, 사진의 분위기를 정하는 빛의 상태, 찍는 이의 감정 상태 등이 바탕이 되고, 여기에 중요한 하나를 더해야 한다. 자신이 곧 사진이 되는 일체감이다.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나고 풍경을 접한다. 사람과 풍경은 우리의 일상을 평범하게 펼쳐 내어 보이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두고두고 멋진 장면으로 기억될 순간들이 우리를 둘러싼 사람과 풍경 속에서 반짝거리며 숨어 있다.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 보자. 카메라가 없다면 스마트폰도 좋다. 세월이 흐르면 보물이 될 사진, 스스로 발견해 낸 소중한 가치가 담긴 사진을 찍어 보자.

혜화여자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람은 가장 많이 찍히는 피사체의 하나이다.
- ② 평범한 일상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 시작된다.
- ③ 사진은 이차원 평면으로 표현된다는 점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④ 인물사진을 찍는 이유에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소통의 간절함이 있다.
- ⑤ 사진의 가치는 사진 찍는 기술이 밑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혜화여자고등학교 (서울)

4. 내용 흐름상 (나)의 (A)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인의 모습을 통해 쾌락을 느낀다.
- ② 타인과 사물의 모습에 흥미를 갖는다.
- ③ 제 모습과 유사한 사람에게 가장 흥미를 보인다.
- ④ 한 장의 사진 속에서 타인의 삶을 투영하고 싶어한다.
- ⑤ 자신과 피사체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혜화여자고등학교 (서울)

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글쓴이는 풍경사진이란 풍경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느낌을 반영하여 재해석한 사진이며, 내면의 본질까지를 드러내면서 사진이 곧 ()고 말한다.

- ① 일상의 희로애락을 포착하여야 한다.
- ② 시대를 뛰어넘는 힘을 드러내야 한다.
- ③ 풍경과 소통하려는 욕구를 가져야 합니다.
- ④ 찍는 이가 되는 일체감을 동원해야 한다.
- ⑤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카메라 기능을 숙지하고 조작법을 능숙하게 익히면 사진을 잘 찍을까? 상업 사진이나 기술적 완성도가 곧 수준으로 통용되는 전문 영역이면 몰라도 기술을 비법이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기술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는 잘못된 습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기술적 지식의 행간을 매워 줄 경험과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다. 다른 사람을 흉내 내지 말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줄 알아야 한다. (중략)

우리가 잘 찍었다고 느끼는 사진도 결국 사람 사는 모습의 진솔함을 담은 사진이다. 이제까지 많은 사진을 찍어 보았지만 끝내 ㉠질리지 않는 사진은 사람을 담은 작품이다. 갈등이 있지만 화해와 사랑으로 이겨내는 인간의 삶이야말로 사진으로 표현하고 싶은 가장 매력적인 주제이다. 좋은 사진이 주는 위안과 격려는 바로 인간에게서 비롯된다.

신문과 잡지에 등장하는 사진들을 유심히 보라. 역시나 사람 사진이 대부분이다. 잡지 표지도 대부분 사람 얼굴이 차지한다. 인간이 주는 흡인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신문 기사 속 인물 사진은 눈빛과 표정으로 미처 글로 옮기지 못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고, 확신에 넘친 주장이 과장이었음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 사진에 찍힌 모습으로 내면의 본질을 읽어 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사람은 제 모습과 유사한 사람에게 가장 흥미를 보인다고 한다. 사람을 찍은 사진은 단지 타인의 모습을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어쩌면 사람을 찍는 일은 사진에 투영된 자아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일지 모른다. 결국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을 찍는다는 것은 소통의 간절함을 드러낸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사람을 찍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과 연결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

이 보고 만났던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찍지 못하는 인물 사진,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인물 사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인물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 (중략)

우리는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내가 찍은 소년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다. 첫 키스의 떨리는 순간을 담은 연인의 사진, 스포츠 경기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사진 등. 인간사의 모든 드라마는 나에게도 일어났거나,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이토록 매력적인 소재인 인물을 사진가들이 놓칠 리 없다. 그래서 이를 아는 사진가들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겁내지 말고 사람을 찍어라. 사람이라는 소재는 마르는 법이 없다. 그러니 사람들을 향해 카메라를 들어라. 그리고 사람에게 대해 애정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라. 그러면 사진 속의 삶을 이어 가는 수많은 인물은 끝없는 감동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일은 결국 자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 윤광준, 「내가 찍고 싶은 사진」

관양고등학교 (경기)

6. 위 글을 통해 답을 확인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진을 잘 찍기 위한 방법
- ② 좋은 인물 사진을 찍는 방법
- ③ 신문과 잡지 속 인물 사진의 효과
- ④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인물 사진의 한계
- ⑤ 다른 사람의 사진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

관양고등학교 (경기)

7. ㉠과 같은 의미로 쓰인 문장은?

- ① 춘향의 머리에는 비녀가 질려 있었다.
- ② 매일 국수만 먹었더니 밀가루 음식에 질렸다.
- ③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리며 실룩실룩 떨리었다.
- ④ 그의 위풍에 구경꾼들은 대번에 기가 질리고 말았다.
- ⑤ 누이동생은 공포 영화를 보자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 핵심 정리

㉠ 규중철우쟁론기(閔中七友爭論記)

갈래	고전 수필, (한글) 수필, 내간체 수필	성격	교훈적, 우화적, 풍자적
제재	바느질 도구들의 공치사와 불평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치사만 일삼는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풍자 • 역할과 직분에 따른 성실한 삶의 가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사물을 의인화하여 세태를 풍자함. • 3인칭 시점의 객관적이고 관찰자적인 태도로 서술함. • 봉건 사회 속에서 변화해 가는 여성 의식을 반영함. 		

■ 구성

전반부	규중 철우의 공치사
후반부	규중 부인에 대한 (불평)과 사죄

■ 포인트

1. 규중 철우의 공치사와 불평

척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감을 마름질하려면 내가 있어야 한다. • 나의 공도 자신의 공이라 하고, 게으른 종의 잠을 깨울 때도 내 허리가 부러지도록 친다.
교두 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름질을 잘 해도 옷감을 자르려면 내가 있어야 한다. • 잘 드니 안 드니 하며 내던지고, 두 다리를 각각 잡아 흔들 때는 불쾌하고 노엽다.
(세오 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감을 자른 후에는 내가 있어야 옷을 지을 수 있다. •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나의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넣어버린다.
청룡족백 각시	아무리 바늘이 있어도 내가 없으면 옷을 꿰맬 수 없다.
감루 할머니	나는 규중 여자의 손부리가 아프지 않게 바느질을 돕는다.
인화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느질을 바르게 하지 못해도 내 손바닥으로 한 번 씻으면 잘못된 흔적을 감출 수 있다. • 붉은 불기운에 낮을 지지고 굳은 것을 깨뜨리는 일을 다 나에게 시킨다.
(을 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만 가지 옷에 참여하여 의복의 구김살을 없앤다. • 목을 잡아 몹시 흔들어서 까불며, 우격다짐으로 누르니 목이 떨어질 때가 많다.

■ 핵심 정리

㉡ 피혁삼우(皮革三友)

갈래	현대 수필	성격	풍자적, 비유적, 우화적
제재	허리띠, 구두, 지갑		
주제	주인을 위해 일하는 허리띠, 구두, 지갑의 일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생활 소품 세 가지를 (의인화)하여 서술함. • 3인칭 관찰자가 각각의 소품에 대해 서술함. 		

■ 구성

㉠	허리띠의 일상과 최근의 고민
㉡	구두의 일상과 (구두 아가씨)를 만났던 특별한 경험
㉢	지갑의 일상과 주인과 헤어졌던 아찔한 경험

■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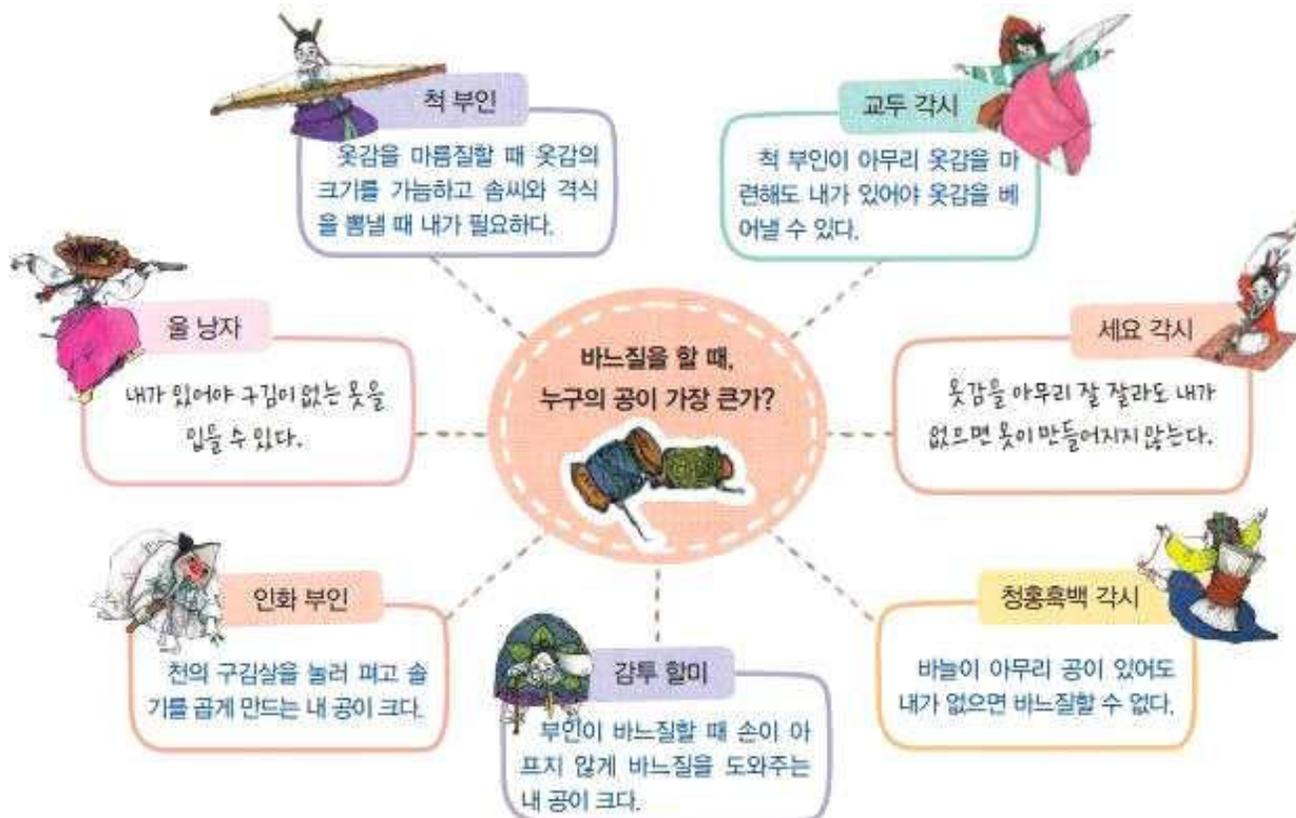
1. 가짜 소품의 외양과 상황

	외양	상황
허리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느다란 혀 하나와 턱을 의지하여 제 꼬리를 물고 있음. 꼬리의 구멍이 두 개밖에 남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이 (신참 녀석)을 데려올까 염려하고 있음. 나이를 먹는 것도 서러운데 신참 녀석에게 밀려날 것을 생각하면 앞날이 서글퍼짐.
구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얼굴과 색이 같지만, 좌우가 대칭인 (쌍둥이) 임. 행사장이라도 가는 날에는 반짝반짝 광이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의 발을 감싸고 지냄. 식당에서 아름다운 구두 아가씨를 만나며 잊지 못할 비밀을 간직하게 됨.
지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이 아끼는 것들을 보듬고 다녀 주인의 총애를 받음. (소매치기) 때문에 주인과 영원히 이별할 뻔했다가 재회함.

문화인 학습 활동

1. 「규정월우정본기」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의 사회문화적 관습과 특색을 이해해 보자.

(1) 2에 나타난 일곱 가지 빚물의 논쟁을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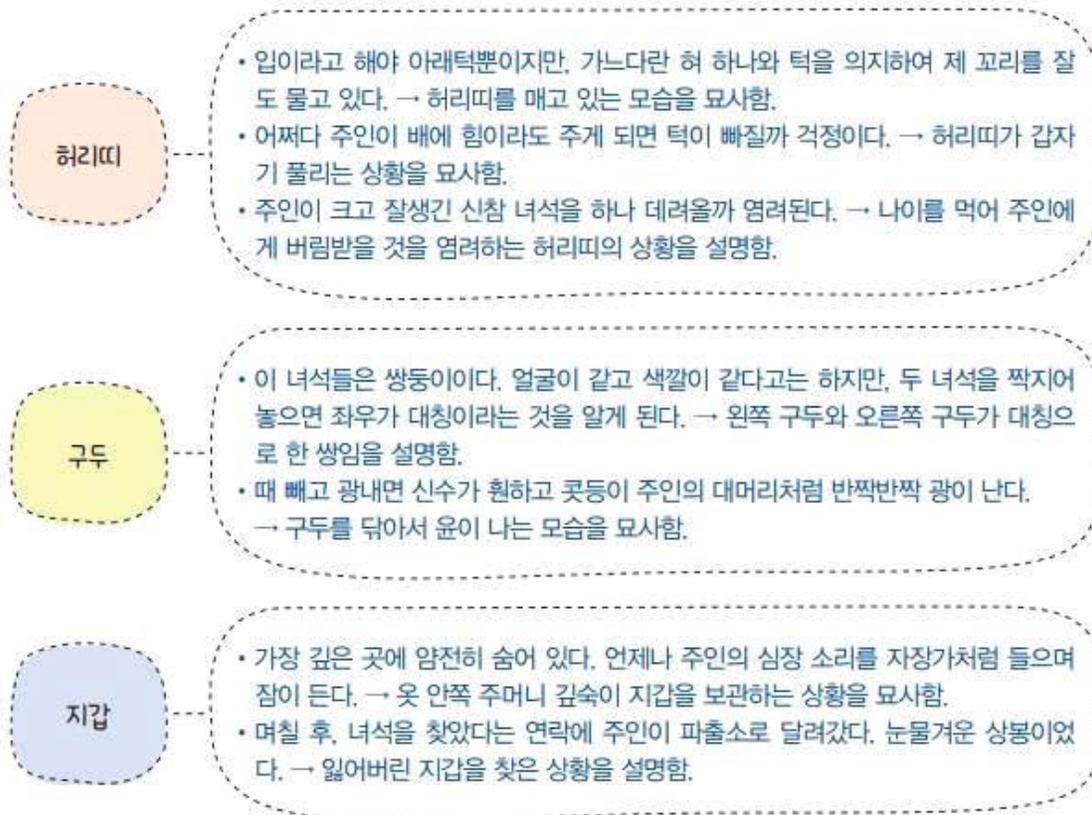


(2) 이는 조선 시대에 한글로 지어진 내간체 수필이다. 이를 참고하여 글 속에 반영된 당대의 사회·문화적 관습과 독서 문화를 찾아보자.

사회·문화적 관습과 독서 문화	글에 반영된 내용
당시 여자들의 일이었던 바느질을 소재로 삼은 것으로 보아 문학 활동의 주제와 향유층이 여성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음	가위, 자, 바늘 등 규중에서 바느질을 할 때 사용하는 소재로 글을 씀.
조선 시대에는 주로 선비들이 글을 읽거나 쓰는 주체였음. 여전히 여자는 집 안에서 살림하는 모습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곱 벗의 성격도 규중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	“글하는 선비는 필묵과 종이, 벼루로 문방사우를 삼았는데, 규중 여자들 홀려 어찌 벗이 없으리오.”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음.
유교 사상의 기본인 장유유서 사상이 반영됨.	일곱 벗들 중 가장 연령이 높은 감투 할미가 이글에서 가장 지혜로운 벗으로 등장함.

2 단 「떡먹삼우」의 중심 내용을 찾고, 글에 나타난 글쓰기 관습을 파악해 보자.

(1) 글에서 세 벗의 외양 또는 상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2) 다음 글을 참고하여, 답에 나타난 글쓰기 관습을 파악해 보자.

1950년대 이후 수필은 철학적인 사고나 통찰, 인생의 관조를 설득하는 경향의 사회적 수필과, 인생을 성찰하고 자연에 몰입하여 심성을 서정화하는 개인적 수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 수필의 주요 경향을 살펴보자.

첫째, 제재의 다양성과 수필의 접근성 확대를 들 수 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관심사가 다양해지고 시각이 넓어지면서 수필의 제재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필은 제재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장르이지만 현대 수필은 제재가 더욱 다양해지고 글쓴이의 전문성에 제한을 두지 않아 누구나 쓸 수 있는 장르로 확대되었다.

둘째, 표현 기법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수필 형식의 자유로운 양상이나 무형식성이 수필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소설의 서사성을 도입한 사건 서술이나 시의 삽입, 극적 상황의 설정, 복합 구조 등 새롭고도 다양한 기법이 등장했다.

- 구인환, 「현대 수필의 양상과 과제」

「피혁삼우」는 인생을 성찰하고 심성을 서정화하는 개인적 수필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선 「피혁삼우」의 글쓴이는 사진작가이자 수필가로, 글쓴이의 전문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대 수필의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소재로 일상생활의 감수성을 표현하여 제재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있고, 사물을 의인화하며 내용을 전개하여 현대 수필이 가진 기법의 다양성의 측면도 잘 표현하고 있다.

3 [여행][모름] 다음 글을 읽고, 시대에 따른 글쓰기 양식 및 독서 문화의 변화 양상을 모둠별로 조사해 보자.

㉞ 1920~1930년대 당시 사람들의 편지 쓰기는 가히 폭발적인 양상을 보였다. 편지는 생활에 밀착된, 신속·정확한 최신의 소통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1935년 한 해 동안 조선 내에서 오고 간 편지는 6억 2천 1백여 만장이라고 한다. 당시 인구를 약 2천만으로 간주할 때 한 사람이 30통 이상 편지를 쓰거나 받은 셈이 되며, 식자율을 15~20%로 추정하면 한 사람이 연간 250~300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셈이다. 당시의 편지 주고받기는 현대인의 휴대 전화 사용처럼 문화 시설의 발달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또한 편지를 잘 쓰는 능력은 상업과 입신출세에 필요한 요건일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타인에게 존경을 받거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었다.

㉟ 근래 많은 사람이 미디어의 서평이나 광고에 의지하여 작품이나 책을 고르고 인터넷으로 책을 사고 읽는다. 이는 불과 몇 년 전부터 급격히 확산된 완전히 새로운 읽기의 양상이다. 이러한 큰 변화는 지금까지 보편적이라고 여겨졌던 ‘서점에서, 정해진 값을 지불하고, 활자로 인쇄된, 책을 사서, 집에서, 혼자, 눈으로 읽는’ 책 읽기 방식이 보편적이지도 영원불변하지도 않다는 것을 새삼 가르쳐 준다. 그러한 책 읽기는 역사의 특정한 국면에서 양식화되고 유행한 일시적이며 특수한 양식일 뿐이다.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겨진 책의 수용 방식은 사실 한국에서는 19세기에서야 나타났고 20세기에 들어서고도 한참이나 지난 후 본격적으로 일반화되었다.

-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1) ㉘, ㉙에서 알 수 있는 글쓰기 관습이나 독서 문화를 정리해 보자.

1920~1930년대에는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속·정확한 소통 방편으로 편지쓰기가 유행하였다. 편지를 잘 쓰는 능력은 상업과 출세에 필요한 여건이며, 타인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다.

㉘ 장소, 시간, 매체의 구애를 받지 않고 책을 사거나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두림 읽기

가. 규중칠우정론기(閔中七友亭論記)

[123쪽 6~8행] 이른바 소위 규중 칠우(閔中七友)는 부인들의 방 안에 있는, 일곱 벗이다. 글하는 선비는 필묵과 종이, 벼루를 문방사우(文房四友)로 삼았으니, 규중 여자들이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오.

→ 규중(閔中)은 부녀자들이 거처하는 곳을 이른다. 이를 통해 부녀자들과 집안 남자들의 거처가 구분되어 있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들, 그중에서도 글하는 선비가 글을 읽거나 쓰는 주체였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던 조선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다.

[123쪽 9~13행] 이리므로 바느질을 돕는 것을 각각 이름을 정하여 벗으로 삼았다. 바늘을 ‘세요(細腰) 각시’라 하고, 자는 ‘척(戚) 부인’이라 하고, 가위를 ‘교두(交頭) 각시’라 하였다. 또 인두를 ‘인화(引火) 부인’이라 하고, 다리미를 ‘울() 낭자’라 하며 실을 ‘청홍흑백(靑紅黑白) 각시’라 하고, 골무를 ‘감투 할미’라 하여 칠우로 삼았다.

→ 바느질을 돕는 일곱 벗은 바늘과 자, 가위, 인두, 다리미, 실, 골무로, 이들의 쓰임새와 생김새 등에 따라 이름을 붙여 의인화하였다. 자와 인두, 다리미는 각각 쓰임새에 따라 척 부인, 인화 부인, 울 낭자라 하였고, 가위와 바늘, 실, 골무는 생김새에 따라 각각 교두 각시, 세요 각시, 청홍흑백 각시, 감투 할미라 하였다.

[123쪽 16행~124쪽 4행] 척 부인이 긴 허리를 재며 말했다.“여러 벗은 들어라. 나는 가는 명주, 굵은 명주, 흰 모시, 가는 베, 아름다운 비단을 다 내어 펼쳐 놓고 남녀의 옷을 마름질할 때, 길고 짧음, 넓고 좁음이며 솜씨와 격식을 내가 아니면 어찌 이루겠는가? 이리므로 옷을 만드는 공은 내가 으뜸이다.”

→ 척 부인이 자신의 생김새와 공을 자랑하는 부분이다. 척 부인은 옷감을 마름질하려면 자신이 있어야 짤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공이 으뜸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자신이 마름질하는 옷감의 종류를 길게 나열하여 설명하는 문장 표현에서 당시의 글쓰기 관습을 파악할 수 있다.

[124쪽 5~7행] 교두 각시가 두 다리를 빨리 놀리며 뛰어나와 말했다.“척 부인아, 그대가 아무리 마름질을 잘한들 베어 내지 않으면 모양이 제대로 되겠느냐? 내 공과 내 덕이니 네 공만 자랑하지 말라.”

→ 자신의 공을 자랑하려고 서둘러 뛰어나오는 교두 각시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교두 각시는 척 부인이 옷감을 아무리 잘 재다 해도 자신이 잘라야만 모양이 제대로 나오고 옷감으로서 기능을 한다며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있다.

[124쪽 8~13행] 세요 각시가 가는 허리를 구부리며 날랜 부리 돌리며 말했다. “두 벗의 말이 옳지 않다. 진주 열 그릇이라도 췌 후에 구슬이라 한다. 재단을 두루 잘한다고 하나 내가 아니면 어찌 옷을 짓겠는가? 잔누비, 중누비, 짧은 솔기, 긴 옷을 이름이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안고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이 재고, 교두 각시가 베어 낸다고 하나 내가 아니면 공이 없으니 두 벗이 무슨 공이라고 자랑하느냐?”

4-(3)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

→ 세요 각시도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듯 바늘 끝을 빠르게 돌리며 자랑을 한다. 세요 각시는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자신의 공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로 옷감을 재고, 가위로 옷감을 자른다 해도 바늘이 있어야 옷감을 이어 옷의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공이 가장 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24쪽 14~16행] 청홍흑백 각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며 화가 나서 말했다.“세요야, 네 공이 내 공이다. 자랑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착한 척하나 한 솔기, 반 솔기인들 내가 아니면 어찌 성공하겠느냐?”

→ 붉은 실과 푸른 실이 섞여 있는 모습을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며 화를 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청홍흑백 각시는 바늘만 옷감에 들락날락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자신이 있어야 바느질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있다.

[124쪽 17행~125쪽 3행] 감투 할미가 웃고 나서 말했다.“각시님들, 웬만히 자랑하소. 이 늙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아가씨들 손부리가 아프지 않게 바느질을 도와 드리니, 옛말에 이르기를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되지 말라.’라고 하였으니, 청홍흑백 각시는 세요의 뒤를 따라다니며 무슨 일을 하시나? 실로 얼굴이 아깝도다. 나는 매양 세요의 귀에 찔렸으나 낮가죽이 두꺼워 견딜 만하여 아무 말도 아니한다.”

→ 바늘에 많이 찔려 헤어지고 주름이 많이 진 골무의 모습을 ‘할미’로 표현했다. 감투 할미는 자신이 규중 부인의 손부리가 아프지 않게 돕느라 바늘에 찔리는 고충을 겪으면서도 공치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한다. 또한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되지 말라.’라는 속담을 빌어 세요 각시(바늘) 뒤만 따라다니는 청홍흑백 각시(실)를 비꼬고 있다.

[125쪽 4~9행] 인화 부인이 말했다.“그대들은 다투지 말라. 나도 잠깐 공을 말하겠다. 중누비, 잔누비가 누구 때문에 저 가닥과 같이 고우며, 한 솔기와 반 솔기가 내가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고우리오. 바느질의 재주가 없는 자가 들락날락하여 바르지 못한 것도 나의 손바닥으로 한 번 씻으면 잘못된 흔적을 감추어 준다. 그러니 세요의 공이 나 때문에 광채가 나는 것이다.”

→ 인화 부인은 바느질에 재주가 없는 사람이 한 바느질이라도 자신이 한 번 다리면 잘못된 흔적이 감추어진다고 말하며 자신의 공을 자랑한다. 또한 자신이 있어야 바늘의 공이 더욱 돋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5쪽 10~19행] 울 남자 크나큰 입을 벌리고 너털웃음으로 말했다.“인화야, 너와 나는 말은 일이 같다. 그러하나 인화는 바느질뿐이다. 나는 천만 가지 옷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얇미운 여자들은 하루 할 일도 열흘이나 한 곳에 멍치어 놓고, 살이 구깃구깃한 것을 나의 넓은 볼기로 한 번 스치면 굵은 실이 날날이 퍼지며 제도와 모양이 고와진다. 더욱 여름철을 만나면 손님이 많아 하루도 한가하지 못하는데 의복이 내가 아니면 어찌 고와지겠는가? 더욱 빨래하는 여자들이 게을러 풀 먹여 넣어 두고 잠만 자며 부딪쳐 말린 것을 나의 넓은 볼기 아니면 어찌 고우며, 세상 남녀들이 어찌 구김살 없는 것을 입으리오. 이러므로 옷을 만드는 공이 내가 제일이다.”

→ 울 남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인화 부인이 하는 일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많은 곳에 쓰이고 있음을 내세워 자신의 공을 자랑한다. 또한 여자들이 하루 할 일도 열흘이나 한 곳에 멍치어 놓고, 빨래를 한 후 풀 먹여 넣어 두고 잠만 자며 부딪쳐 말린다면 게으른 여자들을 질책하고 있다.

[126쪽 1~4행] 규중 부인이 말했다.

“칠우의 공으로 의복을 만드나, 그 공이 사람의 쓰기에 있으니 어찌 칠우의 공이라 하리오.”

하고 칠우를 밀치고 베개를 돋워 깊이 잠이 들었다.

→ 규중 칠우가 서로 자신의 공을 뽐내 보았지만 규중 부인은 칠우의 의복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결국 사람이 쓰기에 달렸다고 그 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중 부인의 발언은 규중 칠우의 공치사를 끝내고 내용 전환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며, 인간 중심의 논리로 규중 칠우의 원망을 촉발하는 역할을 한다.

[126쪽 5~9행] 척 부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매정한 것이 사람이고 공 모르는 것은 여자로다. 의복의 옷감을 자를 때는 먼저 찾고 이루어 내면 자기 공이라 한다. 게으른 종의 잠을 깨우는 막대는 내가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내 허리 부러지는 것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화나지 않으리오.”

4-(3)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

→ 규중 부인이 잠이 들었을 때 자유롭게 자신의 공을 자랑하던 칠우는 규중 부인이 잠에서 깨어 자신들을 꾸중한 뒤 다시 잠이 들자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 먼저 척 부인은 옷감을 자를 때는 자신을 먼저 찾으면서도 옷을 짓는 것이 본인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규중 부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그리고 게으른 종의 잠을 깨울 때에도 허리가 부러지도록 자신을 휘두르는 규중 부인의 행동에도 야속함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126쪽 10~13행] 교두 각시 이어 말하였다.

“그대 말이 옳다. 옷을 마름질하여 베어 낼 때는 나 아니면 못하지마는 잘 드니 안 드니 하며 내던진다. 두 다리를 각각 잡아 흔들 때는 불쾌하고 노여운 것을 어찌 측량하리오.”

→ 교두 각시 또한 척 부인의 의견에 동조하며 규중 부인에 대한 불평을 쏟아 낸다. 교두 각시는 가위질을 하다가 잘 드니 안 드니 하며 가위의 양날을 잡아 흔들는 규중 부인에게 불쾌함과 노여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126쪽 14~21행] 세요 각시 한숨짓고 말하였다.

“너는 물론이거니와 나 역시 일찍이 무슨 일로 사람의 손에 보채이며 요망하고 간악한 말을 듣는가? 뼈에 사무치게 원한이 맺힌다. 나의 약한 허리 휘두르며 날랜 부리 돌려 힘껏 바느질을 돕는 줄을 모르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의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넣으니 어찌 통탄하고 원통하지 않으리오. 사람과는 극한 원수이지만 값을 길이 없어 이따금 손톱 밑을 찢어 피를 내어 원한을 풀면 조금 시원하다. 그러나 간사하고 흉악한 감투 할미가 만류하니 더욱 애달프고 못 견딜 일이다.”

→ 세요 각시는 자신이 허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힘껏 바느질을 돕는데, 규중 부인은 그것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넣는다며 원통해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과는 극한 원수가 되어 가끔 손톱 밑을 찢어 원한을 풀지만, 그것도 감투 할미의 방해로 쉽지 않아 더욱 애달프고 못 견디겠다고 하소연한다.

[126쪽 22~25행] 인화가 눈물지어 말했다.

“그대는 아프다 어떻다 하지만 나는 무슨 죄로 불에 달구어지는 형벌을 받아 붉은 불기운에 낮을 지지고 굳은 것을 깨뜨리는 일을 나에게 다 시키니 싫고 괴롭기는 측량하지 못하겠구나.”

→ 자신의 손바닥으로 한 번 씻으면 바느질의 잘못이 다 감추어진다고 자랑하던 인화 부인은 사실 불에 달구어지는 형벌을 받는 것처럼 낮을 지지고, 굳은 것을 깨뜨리는 일을 자신에게 다 시키는 것이 서럽고 괴롭다며 불만을 털어놓는다. 이는 인두를 사용할 때 화로에 인두를 뜨겁게 달구어 사용하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또한 당시에 인두를 바느질을 할 때도 사용했지만, 호두와 같이 단단한 것을 깨뜨릴 때에도 사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26쪽 26행~127쪽 1행] 울 남자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말했다.

“그대와 하는 일이 같고 욕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모든 옷을 문지르고 목을 잡아 몹시 흔들어서 까불며 우격다짐으로 누르니 황천(皇天)이 덮치는 듯 심신이 아득하여 나의 목이 따로 떨어질 때가 몇 번인지 알리오.”

→ 울 남자도 인화 부인의 말에 동조하며 불평을 토로한다. 다리미 손잡이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누르니 크고 넓은 하늘이 덮치는 듯 정신이 흐려지고, 목이 따로 떨어질 때가 여러 번이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127쪽 2~4행] 칠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탄식하니 자던 여자가 문득 깨어나 칠우에게 말했다.

“칠우는 어찌 내 허물을 그토록 말하느냐?”

→ 규중 부인이 재차 잠에서 깨자, 칠우의 불평도 끝이 난다. 잠에서 깨어난 규중 부인은 자신에 대한 불평을 토로한 규중 칠우를 질책한다.

[127쪽 5~9행] 감투 할미가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며 말했다.

“젊은 것들이 망령되게 헤아림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재주가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여 원망스러운 말은 하니 마땅히 곤장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 깊은 정과 저희의 조그만 공을 생각하여 용서하심이 옳을까 합니다.”

→ 감투 할미는 자신들을 질책하는 규중 부인과 칠우 사이를 중재한다. 감투 할미는 칠우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만, 은근히 자신들의 공을 부각하며 공동체 사회에서 처세술에 능한 사람의 면모를 보인다. 또한 규중 부인을 대하는 감투 할미의 모습은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아첨하는 간신배의 태도를 풍자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3)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

[127쪽 11~13행] “할미 말을 좇아 용서하겠다. 내 손부리 성함이 할미 공이니 꺾치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겠다. 비단 주머니를 지어 그 가운데 넣어 몸에 지녀 서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 감투 할미의 말을 들은 규중 부인은 칠우의 공을 용서한다고 말하며, 특히 감투 할미의 공을 높이 사 비단 주머니에 감투 할미를 넣어 늘 가지고 다니겠다고 약속한다. 이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자를 편애하는 모습으로, 당대 사회 지배층을 풍자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나. 피혁삼우(皮革三友)

[128쪽 3~4행] 일을 할 때면 제 꼬리를 물고 있어야 한다. 입이라고 해야 아래턱뿐이지만, 가느다란 혀 하나와 턱을 의지하여 제 꼬리를 잘도 물고 있다.

→ 허리띠의 끝부분을 꼬리로, 허리띠의 고리 부분을 입의 아래턱과 혀로 의인화하여 허리띠가 채워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128쪽 11~15행] 친구 중에는 별난 녀석도 있다. 그의 주인이 모임의 뒤풀이 같은 곳에서 취하기라도 하면 허리를 꼭 껴안고 있어야 할 녀석의 머리를 잡고 꼬리까지 빼낸다. 그러고는 모가지를 잡은 채 배를 훑어 내리면서 익살스럽게 외친다. “이것이 무엇이냐. 배암이야 배암. 애들은 가. 어른들은 보짝보짝 다가와!” 취중 사람들의 배꼽이 빠질까 걱정이다. 배암이 무엇이기에 저리도 재미있을까.

→ 서술자는 술에 취해 허리띠를 풀고 뱀 장수 흉내를 내는 중년 남성의 모습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서술자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뱀 장수를 흉내 내는 광경이 더욱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128쪽 16~20행] 요즈음 녀석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다. 주인의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것을 느낀다. 지난해에 이미 사용하는 구멍이 한 칸 더 뒤로 밀려났다. 주인의 허리가 굽어질수록 녀석은 입으로 꼬리를 잡기가 힘들다. 이제 꼬리의 구멍이 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 구멍까지 턱이 닿을 수 있으면 녀석도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

→ 허리띠의 주인은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중년 남성이다. 사용할 수 있는 구멍이 두 개밖에 남지 않은 허리띠는 더 이상 입으로 꼬리를 잡지 못하게 될까 봐 고민하고 있다. 허리띠는 자신이 주인의 허리 둘레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주인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128쪽 20~23행] 주인이 크고 잘생긴 신참 녀석을 하나 데려올까 염려된다. 시장에 가면 얼룩무늬 악어가죽이나 부드러운 양가죽까지 갖가지 색깔과 모양을 한 예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나이를 먹는 것도 서러운데 그들에게 밀려날 것을 생각하면 앞날이 서글퍼진다.

→ 허리띠는 주인의 허리가 굽어져 힘에 부쳐도 열심히 제 할 일을 한다. 하지만 주인이 늙은 자신을 버리고 크고 멋있는 새 허리띠를 사올까 봐 염려하고 있다. 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8쪽 25행~129쪽 1행] 이 녀석들은 쌍둥이이다. 얼굴이 같고 색깔이 같다고는 하지만, 두 녀석을 짝지어 놓으면 좌우가 대칭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쌍둥이 녀석들은 언제나 함께 지낸다.

→ 구두의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이다. 신발은 왼발과 오른발에 각각 신어야 하기 때문에 두 개가 있어야 온전히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특성에 착안하여 구두를 좌우가 대칭인 쌍둥이로 표현하고 있다.

[129쪽 4~7행] 세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 살다 청소차에 실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다 해도 한 방울의 눈물마저 흘리지 못한다. 누구 하나 불쌍하게 생각해 주는 이 없다.

→ 구두의 숙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구두는 평생을 주인을 위해 살지만, 낡아서 버려져도 어느 하나 불쌍하게 생각해 주는 이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여 열심히 일해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언제라도 버림받을 수 있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

[129쪽 8~10행] 주인이 무슨 행사장이라도 가는 날은 덩달아 신이 난다. 때 빼고 광내면 신수가 흰하고 콧등이 주인의 대머리처럼 반짝반짝 광이 난다. 잘나가는 신참 녀석에게도 끌리지 않는다.

→ 주인은 특별한 장소에 갈 때면 구두를 윤이 나게 닦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인이 광을 내주면 구두는 자신이 신참 녀석에게도 끌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큼 자신감이 넘치고 신이 난다. 또한 콧등이 주인의 대머리처럼 광이 난다고 한 것으로 보아 구두의 주인이 대머리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129쪽 11~14행] 녀석들은 비 오는 날을 싫어한다. 거리에 낙엽이라도 튀구는 날 비라도 내리면 지푸라기에 매단 해삼처럼 온몸이 풀어진다. 진흙탕 길도 싫다. 덧씩우기 한 여름날의 아스팔트 길은 진드기처럼 달라붙어서 더욱 싫다.

→ 구두는 더운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주인이 신고 나서면 주인의 발을 감싸고 여기저기 다녀야 한다. 구두가 싫어하는 날씨와 길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구두의 고달픈 삶을 드러내고 있다.

[129쪽 17~20행] 어느 날 녀석들은 그곳에서 일생 동안 가슴에 묻어 둔 비밀 하나를 얻었다. 뺨에 닿는 순간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어느 땐가 강아지 꼬리를 밟았을 때의 놀라운 기분이라고나 할까. 게다가 부드럽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질이기까지.

→ 구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 당시 전율을 느꼈으며, 부드럽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질였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것은 매우 기분 좋은 경험이며, 비밀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주인은 눈치채지 못한 일임을 알 수 있다.

[129쪽 21~23행] 그동안 주인댁 딸까지도 싫어하는 냄새를 잘도 참아 왔지. 솔직히 말해서 녀석도 처음에는 발 냄새가 싫었지만 이제는 운명이라니 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오히려 구수한 청국장 냄새쯤으로 여겨 왔다.

→ 구두의 현실 순응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처음에는 구두도 주인의 발 냄새가 싫었지만 나중에는 구수한 청국장 냄새로 여기게 되었다며, 자신의 현실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여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9쪽 24~27행] 같은 처지이면서 어찌 이처럼 향기로울 수가 있을까. 녀석들의 옆에 다소곳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아가씨로부터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향기가 스며 나왔다. 게다가 잘록한 허리 하며 죽 뺨은 각선미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을까.

→ 구두가 말했던 '일생 동안 가슴에 묻어 둔 비밀 하나'가 무엇인지 밝혀지는 대목으로, 식당에서 만난 구두 아가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잘록한 허리'와 '죽 뺨은 각선미'를 가진 신발이라는 점에서 '하이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129쪽 28행~130쪽 2행] 녀석들은 아가씨와 함께 지냈던 짧은 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일이 있었던 뒤부터 녀석들은 비밀의 씨앗을 마음 밭에 심은 채 살아간다.

→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글의 흥미를 높이는 부분이다. 아름다운 구두 아가씨를 만났던 잊지 못할 경험과 다시 만나고 싶은 기대감을 비밀의 씨앗으로 표현하여, 그 씨앗을 마음 밭에 심어 고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구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130쪽 5~6행] 가장 깊은 곳에 얽전히 숨어 있다. 언제나 주인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이 든다.

→ 주인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갑이 있는 곳은 주인의 왼쪽 가슴 부근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갑은 윗옷의 안쪽에 지갑을 넣기 위해 만들어진 속주머니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0쪽 7~10행] 주인의 얼굴이 찍힌 주민 등록증이며, 신용 카드, 사진 한 장, 그리고 이름을 적은 몇 장의 종잇조각 등을 보듬고 다닌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종이이다. 주인은 그 종이를 먹을 것으로 바꾼다. 꼭 있어야 할 것들을 품고 있다 보니 녀석은 주인의 총애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지낸다.

→ 지갑은 허리띠나 구두에 비해 하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보듬고 다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민 등록증이나 신용 카드 등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경제생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현대인들의 생활에

4-(3)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

필요한 것들이다. 지갑은 이러한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130쪽 11행]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주인과 영원히 이별하는 줄 알았다.

→ 주인의 품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지갑은 어느 날 주인과 헤어질 뻔했던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사건의 내용을 먼저 말하지 않고, 당시의 소감을 먼저 밝힘으로써 독자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130쪽 16~19행] 그 당시 주인은 만원 전철에서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문득 누군가 주인의 어깨를 툭 쳐서 주인이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누군가, “도둑이야! 소매치기다!”라고 외쳤다. 주인의 손이 문득 가슴으로 갔다. 이쪽저쪽 주머니를 눌러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속주머니가 예리한 칼에 찢겨 있는 것이 아닌가.

→ 봄비는 만원 전철에서 소매치기가 일부러 주인의 어깨에 부딪치며 속주머니를 칼로 찢고 지갑을 훔쳐갔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주인이 자신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주인과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던 지갑은 이 사건으로 인해 주인과 영영 헤어질 뻔 했다.

[130쪽 21~26행] 며칠 후, 녀석을 찾았다는 연락에 주인이 파출소로 달려갔다. 눈물겨운 상봉이었다. 그때까지도 녀석은 빛 바랜 사진 한 장을 꼭 껴안고 있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잊지 못해 사진을 품고 다니는 주인을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겨울이면 맨손으로 어머니 무덤의 눈을 쓸어내리는 주인이다.

→ 다행히 지갑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주인이 소중히 품고 다니던 사진에 무엇이 찍혀 있는지 밝혀지는 대목이다. 사진의 주인공은 돌아가신 어머니였으며, 지갑이 그 사진을 꼭 껴안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인에 대한 지갑의 애정과 의리를 엿볼 수 있다.

문답

1. 안방에 거처하는 규중 부인들의 일곱 벗은 누구인가?

바늘(세요 각시), 자(척 부인), 가위(교두 각시), 인두(인화 부인), 다리미(울 남자), 실(청홍흑백 각시), 골무(감투 할미)

2. 척 부인이 규중 부인에게 매정하고, 공을 모른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규중 부인이 의복의 옷감을 자를 때나 게으른 종의 잠을 깨울 때에는 자신을 먼저 찾으면서도 그 공을 모르고 모두 규중 부인 자신의 공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3. 규중 부인의 말에도 탄식하지 않고 갈등을 중재하려 한 벗은 누구인가?

감투 할미

4. 요즈음 ‘허리띠’의 고민은 무엇인가?

허리띠는 주인의 허리가 점점 굽어져 자신이 입으로 꼬리를 잡기가 힘들어올 정도가 되자, 주인이 크고 잘생긴 신참 녀석을 데려올까 염려한다.

5. 쌍둥이 ‘구두’가 얻은 비밀은 무엇인가?

구두 아가씨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부드럽고 달콤한 향기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

6. ‘지갑’이 겪은 아찔한 일은 무엇인가?

주인이 소매치기를 당해 주인과 생이별할 뻔했던 일

백지 노트

시험 공부의 마지막은 백지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써 보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척 부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매정한 것이 사람이고 공 모르는 것은 여자로다. 의복의 옷감을 자를 때는 먼저 찾고 이루어 내면 자기 공이라 한다. 게으른 종의 잠을 깨우는 막대는 내가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내 허리 부러지는 것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화나지 않으리오.”

㉡교두 각시 이어 말하였다.

“그대 말이 옳다. 옷을 마름질하여 베어 낼 때는 나 아니면 못 하지마는 잘 드니 안 드니 하며 내던진다. 두 다리를 각각 잡아 흔들 때는 불쾌하고 노여운 것을 어찌 측량하리오.”

㉢세요 각시 한숨 짓고 말하였다.

“너는 물론이거니와 나 역시 일찍이 무슨 일로 사람의 손에 보채이며 요망하고 간악한 말을 듣는가? 뼈에 사무치게 원한이 맺힌다. 나의 약한 허리 휘두르며 날랜 부리 돌려 힘껏 바느질을 돕는 줄을 모르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의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넣으니 어찌 통탄하고 원통하지 않으리오. 사람과는 극한 원수이지만 값을 길이 없어 이따금 손톱 밑을 찢러 피를 내어 원한을 풀면 조금 시원하다. 그러나 간사하고 흉악한 감투 할미가 만류하니 더욱 애달프고 못 견딜 일이다.”

(나) 칠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탄식하니 자던 여자가 문득 깨어나 칠우에게 말했다.

“칠우는 어찌 내 허물을 그토록 말하느냐?”

감투 할미가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며 말했다.

“젊은 것들이 망령되게 헤아림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재주가 있으나 공을 몰라준다고 원망스러운 말을 하니 마땅히 곤장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 깊은 정과 저희의 조그만 공을 생각하여 용서하심이 옳을까 합니다.”

여자가 답하였다.

“할미 말을 좇아 용서하겠다. 내 손부리 성함이 할미 공이니 께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겠다. 비단 주머니를 지어 그 가운데 넣어 몸에 지녀 서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할미는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하고 ㉣여러 벗은 부끄러워하며 물러났다.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경남)

1. 다음은 위 작품에 대한 해설이다. 읽고 조건에 맞게 물음에 답하라.

규중칠우쟁론기는 규중 부인들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침선(針線)의 일곱 가지를 의인화하여 인간 사회를 (㉠)한 한글 수필이다. 그러나 수필임에도 불구하고 ‘나’가 등장하지 않으며 마치 소설의 (㉡)시점처럼 등장인물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서술하고 있다.

(1) ㉠은 ‘비판적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한 단어로 답하시오.

(2) ㉡은 소설의 4가지 시점 중 하나로 답하시오.

(3) (가)의 밑줄 친 ㉠, ㉡, ㉢의 공통적인 불만 사항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경남)

2. 작가는 밑줄 친 ㉣처럼 이 글을 끝내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조건>

• 위에 제시된 지문만을 고려해서 서술하라.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4-(3)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른바 소위 규중 칠우(閩中七友)는 부인들의 방 안에 있는, 일곱 벗이다. 글하는 선비는 필묵과 종이, 벼루를 문방사우(文房四友)로 삼았으니, 규중 여자인들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오. (중략)

규중부인이 말했다.

“칠우의 공으로 의복을 만드나, 그 공이 사람의 쓰기에 있으니 어찌 칠우의 공이라 하리오.”

하고 칠우를 밀치고 베개를 돋워 깊이 잠이 들었다.

척 부인이 탄식하여 말했다.

“매정한 것이 사람이고 공 모르는 것은 여자로다. 의복의 옷감을 자를 때는 먼저 찾고 이루어 내면 자기 공이라 한다. 게으른 종의 잠을 깨우는 막대는 내가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내 허리 부러지는 것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화나지 않으리오.”

교두 각시 이어 말하였다.

“그대 말이 옳다. 옷을 마름질하여 베어 낼 때는 나 아니면 못하지마는 잘 드니 안 드니 하며 내던진다. 두 다리를 각각 잡아 흔들 때는 불쾌하고 노여운 것을 어찌 측량하리오.”

세요 각시 한숨짓고 말하였다.

“너는 물론이거니와 나 역시 일찍이 무슨 일로 사람의 손에 보채이며 요망하고 간악한 말을 듣는가? 뼈에 사무치게 원한이 맺힌다. 나의 약한 허리 휘두르며 날랜 부리 돌려 힘껏 바느질을 돕는 줄을 모르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의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넣으니 어찌 통탄하고 원통하지 않으리오. 사람과는 극한 원수이지만 값을 길이 없어 이따금 손톱 밑을 찔러 피를 내어 원한을 풀면 조금 시원하다. 그러나 간사하고 흉악한 감투 할미가 만류하니 더욱 애달프고 못 견딜 일이다.”

인화가 눈물지어 말했다.

“그대가 아프다 어떻다 하지만 나는 무슨 죄로 불에 달구어지는 형벌을 받아 붉은 불기운에 낮을 지지고 굳은 것을 깨뜨리는 일을 나에게 다 시키니 삶고 괴롭기는 측량하지 못하겠구나.”

올 남자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말했다.

“그대와 하는 일이 같고 욕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모든 옷을 문지르고 목을 잡아 몹시 흔들어서 까불며 우격다짐으로 누르니 황천(皇天)이 덮치는 듯 심신이 아득하여 나의 목이 따로 떨어질 때가 몇 번인지 알리오.”

칠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탄식하니 자던 여자가 문득 깨어나 칠우에게 말했다.

“칠우는 어찌 내 허물을 그토록 말하느냐?”

감투 할미가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며 말했다.

“젊은 것들이 망령되게 헤아림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재주가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여 원망스러운 말을 하니 마땅히 곤장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 깊은 정과 저희의 조그만 공을 생각하여 용서하심이 옳을까 합니다.”

여자가 답하였다.

“할미 말을 좇아 용서하겠다. 내 손부리 성함이 할미 공이니 꿰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겠다. 비단 주머니를 지어 그 가운데 넣어 몸에 지녀 서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할미는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하고 여러 벗은 부끄러워하며 물러났다.

- 작자 미상, 「규중칠우쟁론기(閩中七友爭論記)」

(나) 가장 깊은 곳에 암전히 숨이 있다. 언제나 주인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이 든다. 딱히 무슨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할일이 있다. 주인의 얼굴이 찍힌 주민 등록증이며, 신용 카드, 사진 한 장. 그리고 이름을 적은 몇 장의 종잇조각 등을 보듬고 다닌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종이이다. (중략) 꼭 있어야 할 것 들을 품고 있다 보니 녀석은 주인의 총애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지낸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주인과 영원히 이별하는 줄 알았다. 주인은 녀석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사나이는 명예롭게 살다 그 명예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해.”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지만 세월이 가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녀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주인이 자신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그 당시 주인은 만원 전철에서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문득 누군가 주인의 어깨를 툭 쳐서 주인이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누군가. “도둑이야! 소매치기다!”라고 외쳤다. 주인의 손이 문득 가슴으로 갔다. 이쪽저쪽 주머니 부분을 눌러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속주머니가 예리한 칼에 찢겨 있는 것이 아닌가. 주인은 마음속으로 빌었겠지, 사진만이라도 돌려주었으면 하고.

며칠 후, 녀석을 찾았다는 연락에 주인이 파출소로 달려갔다. 눈물겨운 상봉이었다. 그때까지도 녀석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꼭 껴안고 있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잊지 못해 사진을 품고 다니는 주인을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겨울이면 맨손으로 어머니 무덤의 눈을 쓸어내리는 주인이다.

- 오병훈, 「피혁삼우(皮革三友)」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

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시 여자들의 일이었던 바느질을 소재로 삼은 것으로 보아 문학 활동의 주체와 향유층이 여성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조선 시대의 가부장적 질서 속에 갇혔던 여성들의 세계에서 각자가 해낸 역할을 당당히 내세우는 모습은 이전의 문학에서는 생소한 장면이다.
- ③ 만약 의인화된 규중 칠우를 조선 시대의 실제 규방 여성들로 본다면 이들의 당당한 자기주장은 시대적 배경으로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 ④ (가)는 작품 속의 ‘나’가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작가가 ‘그들’의 내면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외면만 관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
- ⑤ 조선 시대 여성들의 세계에서 조금씩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조선의 봉건 체제에서 남성들에 의해 철저히 억압당했던 여성들의 비판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

4. <보기>를 참고하여 (나)에 나타난 글쓰기 관습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50년대 이후 수필은 철학적인 사고나 통찰, 인생의 관조를 설득하는 경향의 사회적 수필과, 인생을 성찰하고 자연에 몰입하여 심성을 서정화하는 개인적 수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 수필의 주요 경향을 살펴보자.

첫째, 제재의 다양성과 수필의 접근성 확대를 들 수 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관심사가 다양해지고 시각이 넓어지면서 수필의 제재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필은 제재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장르이지만 현대 수필은 제재가 더욱 다양해지고 글쓴이의 전문성에 제한을 두지 않아 누구나 쓸 수 있는 장르로 확대되었다.

둘째, 표현 기법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수필 형식의 자유로운 양상이나 무형식성이 수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소설의 서사성을 도입한 사건 서술이나 시의 삽입, 극적 상황의 설정, 복합 구조 등 새롭고도 다양한 기법이 등장했다.

- ① (나)는 형식의 자유로운 양상과 무형식성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가진다.
- ② (나)는 인생을 성찰하고 심성을 서정화하는 개인적 수필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 ③ (나)의 글쓴이는 식물학자이자 수필가로, 글쓴이의 전문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대 수필의 특성을 보여 준다.
- ④ (나)는 사물을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는데 이는 현대 수필이 가진 기법의 다양성의 측면을 보여 준다.
- ⑤ (나)는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소재로 일상생활의 감수성을 표현하여 수필의 전문성 신장을 보여주고 있다.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

5. (가)에 나타난 규중 부인의 태도를 (가)가 쓰인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비판하고, 규중 칠우 중 감투 할미가 가장 지혜롭게 등장하는 모습에 반영된 당대의 사회 문화적 관습에 대해 서술하시오.

- 조건 : 각각 두 문장 이내로 서술할 것.
- 1) 규중 부인의 태도 비판 : _____
- 2) 감투 할미가 가장 지혜롭게 등장하는 모습에 반영된 당대의 사회·문화적 관습 :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른바 소위 규중 칠우(閨中七友)는 부인들의 방 안에 있는, 일곱 벗이다. 글하는 선비는 필묵과 종이, 벼루를 문방사우(文房四友)로 삼았으니, 규중 여자인들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오. (중략)

규중 부인들이 아침에 제수하고 머리를 빗고 나면 칠우가 일제히 모여 함께 의논하여 각각 맡은 소임을 끝까지 해냈다.

하루는 칠우가 모여 바느질의 공을 의논하였다.

척 부인이 긴 허리를 재며 말했다.

“여러 벗은 들어라. 나는 가는 명주, 굵은 명주, 흰 모시, 가는 베, 아름다운 비단을 다 내어 펼쳐 놓고 남녀의 옷을 마름질할 때, 길고 짧음, 넓고 좁음이며 솜씨와 격식을 내가 아니면 어찌 이루겠는가? 이리므로 옷을 만드는 공은 내가 으뜸이다.”

교두 각시가 두 다리를 빨리 놀리며 뛰어나와 말했다.

“척 부인아, 그대가 아무리 마름질을 잘한들 베어 내지 않으면 모양이 제대로 되겠느냐? 내 공과 내 덕이니 네 공만 자랑하지 말라.”

○세요 각시가 가는 허리를 구부리며 날랜 부리 돌리며 말했다.

“두 벗의 말이 옳지 않다. 진주 열 그릇이라도 뽕 후에 구슬이라 한다. 재단을 두루 잘한다고 하나 내가 아니면 어찌 옷을 짓겠는가? 잔누비, 중누비, 짧은 솔기, 긴 옷을 이룸이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안고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이 재고, 교두 각시가 베어 낸다고 하나 내가 아니면 공이 없으니 두 벗이 무슨 공이라고 자랑하느냐?”

청홍흑백 각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며 화가 나서 말했다.

“세요야, 네 공이 내 공이다. 자랑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착한 척하나 한 솔기, 반 솔기인들 내가 아니면 어찌 성공하겠느냐?”

㉠감투 할미가 웃고 나서 말했다.

“각시님들, 웬만히 자랑하소. 이 늙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아가씨들 손부리가 아프지 않게 바느질을 도와 드리니, 옛말에 이르기를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되지 말라.’라고 하였으니, 청홍흑백 각시는 세요의 뒤를 따라다니며 무슨 일을 하시나? 실로 얼굴이 아깝도다. 나는 매양 세요의 귀에 찼리었으나 낮가죽이 두꺼워 견딜 만하여 아무 말도 아니 한다.”

㉡인화 부인이 말했다.

“그대들은 다투지 말라. 나도 잠깐 공을 말하겠다. 중누비, 잔누비가 누구 때문에 저 가닥과 같이 고우며, 한 솔기와 반 솔기가 내가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고우리오. 바느질의 재주가 없는 자가 들락날락하여 바르지 못한 것도 나의 손바닥으로 한 번 씻으면 잘못된 흔적을 감추어 준다. 그러니 세요의 공이 나 때문에 광채가 나는 것이다.”

㉢울 남자 크나큰 입을 벌리고 너털웃음으로 말했다.

“인화야. 너와 나는 말은 일이 같다. 그러나 인화는 바느질뿐이다. 나는 천만 가지 옷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알미운 여자들은 하루 할 일도 열흘이나 한 곳에 뭉치어 놓고, 살이 구깃구깃한 것을 나의 넓은 불기로 한 번 스치면 굵은 실이 날날이 펴지며 제도과 모양이 고와진다. 더욱 여름철을 만나면 손님이 많아 하루도 한가하지 못하는데 의복이 내가 아니면 어찌 고와지겠는가? 더욱 빨래하는 여자들이 게을러 풀 먹여 넣어 두고 잠만 자며 부딪쳐 말린 것을 나의 넓은 불기 아니면 어찌 고우며, 세상 남녀들이 어찌 구김살 없는 것을 입으리오. 이러므로 옷을 만드는 공이 내가 제일이 된다.”

규중 부인이 말했다.

“칠우의 공으로 의복을 만드나, 그 공이 사람의 쓰기에 있으니 어찌 칠우의 공이라 하리오.”

하고 칠우를 밀치고 베개를 돋워 깊이 잠이 들었다.

- 작자 미상, 조선 문학 편집 위원실 엮음, 「우리 문학의 뿌리」

(나)

㉣허리띠

일을 할 때면 제 꼬리를 물고 있어야 한다. 입이라고 해야 아래턱뿐이지만, 가느다란 혀 하나와 턱을 의지하여 제 꼬리를 잘도 물고 있다. 종일 주인의 허리를 껴안고 숨죽인 채 지내야 한다. 어쩌다 주인이 배에 힘이라도 주게 되면 턱이 빠질까 걱정이다. 실제 녀석의 친구 중에는 가끔씩 금속제 목이 떨어진 녀석도 있었다. 다행히도 솜씨 좋은 수선공이 다시 끼워 주었지만,

매일 이런 상태로 지내야 하니 긴장의 연속이다. 특히 주인이 허물없는 친구에게 오찬이라도, 초대된 날은 더욱 힘이 든다. 그런 날은 물고 있던 꼬리를 놓게 하여 잠시나마 녀석을 자유롭게 할 때도 있지만 아주 드문 일이다.

친구 중에는 별난 녀석도 있다. 그의 주인이 모임의 뒤풀이 같은 곳에서 취하기라도 하면 허리를 꼭 껴안고 있어야 할 녀석의 머리를 잡고, 꼬리까지 빼낸다. 그리고는 모가지로 잡은 채 배를 훑어 내리면서 익살스럽게 외친다. “이것이 무엇이나. 배암이야 배임. 애들은 가. 어른들은 보짝보짝 다가와!” 취중 사람들의 배꼽이 빠질까 걱정이다. 배암이 무엇이기에 저리도, 재미있을까.

요즈음은 녀석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다. 주인의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것을 느낀다. 지난해에 이미 사용하는 구멍이 한 칸 더 뒤로 밀려났다. 주인의 허리가 굽어질수록 녀석은 입으로 꼬리를 잡기가 힘들다. 이제 꼬리의 구멍이 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 구멍까지 턱이 닿을 수 있으면 녀석도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 주인이 크고 잘생긴 신참 녀석을 하나 데려올까 염려된다. 시장에 가면 얼룩무늬 악어가죽이나 부드러운 양가죽까지 갖가지 색깔과 모양을 한 예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나이를 먹는 것도 서러운데 그들에게 밀려날 것을 생각하면 앞날이 서글퍼진다.

- 오병훈, 「초록빛 향기」

관양고등학교 (경기)

6. (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성 화자의 수사적 표현이 돋보이는 내간체(內簡體)수필이다.
- ② 문학 활동의 주체와 향유층이 여성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개인적 체험에서 깨달은 바를 일반화하여 인간생활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 ④ 우화적인 성격을 통해 봉건 사회 속에서 변화해 가는 여성상을 발견할 수 있다.
- 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관양고등학교 (경기)

7. ㉠ ~ ㉣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속담을 인용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② ㉡은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함으로써 겸손함과 인내심을 과시하고 있군.
- ③ ㉢은 잘못된 흔적을 감추어 준다는 점에서 ㉡과는 구별되는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은 게으른 여자들이 대한 질책을 통해 규중 부인보다 자신의 공이 앞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군.
- ⑤ ㉠은 주인의 늘어나는 허리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칠우가 모여 바느질의 공을 의논하였다.

척 부인이 긴 허리를 재며 말했다.

[A] “여러 벗은 들어라. 나는 가는 명주. 굵은 명주, 흰 모시, 가는 베, 아름다운 비단을 다 내어 펼쳐 놓고 남녀의 옷을 마름질할 때, 길고 짧음, 넓고 좁음이며 솜씨와 격식을 내가 아니면 어찌 이루겠는가? 이리므로 옷을 만드는 공은 내가 으뜸이다.”

교두 각시가 두 다리를 빨리 놀리며 뛰어나와 말했다.

“척 부인아, 그대가 아무리 마름질을 잘한들 베어 내지 않으면 모양이 제대로 되겠느냐? 내 공과 내 덕이니 네 공만 자랑하지 말라.”

세요 각시가 가는 허리를 구부리며 날랜 부리 돌리며 말했다.

[B] “두 벗의 말이 옳지 않다. 진주 열 그릇이라도 썩 후에 구슬이라 한다. 재단을 두루 잘한다고 하나 내가 아니면 어찌 옷을 짓겠는가? 잔누비, 중누비, 짧은 솔기, 긴 옷을 이름이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안고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이 재고, 교두 각시가 베어 낸다고 하나 내가 아니면 공이 없으니 두 벗이 무슨 공이라고 자랑하느냐?”

청홍흑백 각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며 화가 나서 말했다.

“세요야, 네 공이 내 공이다. 자랑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착한 척하나 한 솔기, 반 솔기인들 내가 아니면 어찌 성공하겠느냐?”

감투 할미가 웃고 나서 말했다.

[C] “각시님들, 웬만히 자랑하소. 이 늙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아가씨들 손부리가 아프지 않게 바느질을 도와 드리니, 옛말에 이르기를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되지 말라.’라고 하였으니, 청홍흑백 각시는 세요의 뒤를 따라다니며 무슨 일을 하시나? 실로 얼굴이 아깝도다. 나는 매양 세요의 귀에 찔리었으나 낮가죽이 두꺼워 견딜 만하여 아무 말도 아니한다.”

인화 부인이 말했다.

[D] “그대들은 다투지 말라. 나도 잠깐 공을 말하겠다. 중누비, 잔누비가 누구 때문에 저 가닥과 같이 고우며, 한 솔기와 반 솔기가 내가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고우리오. 바느질의 재주가 없는 자가 들락날락하여 바르지 못한 것도 나의 손바닥으로 한 번 씻으면 잘못된 흔적을 감추어 준다. 그러니 세요의 공이 나 때문에 광채가 나는 것이다.”

울 남자 크나큰 입을 벌리고 너털웃음으로 말했다.

[E] “인화야. 너와 나는 말은 일이 같다. 그러하나 인화는 바느질뿐이다. 나는 천만 가지 옷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알미운 여자들은 하루 할 일도 열흘이나 한 곳에 멍치어 놓고, 살이 구깃구깃한 것을 나의 넓은 불기로 한 번 스치면 굵은 실이 날날이 퍼지며 제도와 모양이 고와진다. 더욱 여름철을 만나면 손님이 많아 하루도 한가하지 못하는데 의복이 내가 아니면 어찌 고와지겠는가? 더욱 빨래하는 여자들이 게을러 풀 먹여 넣어 두고 잠만 자며 부딪쳐 말린 것을 나의 넓은 불기 아니면 어찌 고우며, 세상 남녀들이 어찌 구김살 없는 것을 입으리오. 이리므로 옷을 만드는 공이 내가 제일이다.”

규중 부인이 말했다.

“칠우의 공으로 의복을 만드나, 그 공이 사람의 쓰기에 있으니 어찌 칠우의 공이라 하리오.”

하고 칠우를 밀치고 베개를 돋워 깊이 잠이 들었다.

척 부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매정한 것이 사람이고 공 모르는 것은 여자로다. 의복의 옷감을 자를 때는 먼저 찾고 이루어 내면 자기 공이라 한다. 게으른 종의 잠을 깨우는 막대는 내가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내 허리 부러지는 것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화나지 않으리오.” <중략>

칠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탄식하니 자던 여자가 문득 깨어나 칠우에게 말했다.

“칠우는 어찌 내 허물을 그토록 말하느냐?”

감투 할미가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며 말했다.

“젊은 것들이 망령되게 헤아림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재주가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여 원망스러운 말을 하니 마땅히 곤장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 깊은 정과 저희의 조그만 공을 생각하여 용서하심이 옳을까 합니다.”

여자가 답하였다.

“할미 말을 좇아 용서하겠다. 내 손부리 성함이 할미 공이니 꺾치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겠다. 비단 주머니를 지어 그 가운데 넣어 몸에 지녀 서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할미는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하고 여러 벗은 부끄러워하며 물러났다.

동덕여자고등학교 (서울)

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로 바느질 도구의 생김새나 쓰임새를 활용하여 인물의 이름을 지어 붙였다.
- ② 이야기를 전하는 이는 3인칭 시점에서 관찰자적인 태도를 취하며 서술하고 있다.
- ③ 이기적인 세태를 풍자하면서 직분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대화와 행동을 위주로 내용을 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작품의 우의적 성격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⑤ 의인화된 인물들 간의 말다툼을 통해 당시 일반적인 가정에서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수입은 대부분 여성의 가사 노동에 의존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동덕여자고등학교 (서울)

9. [A] ~ [E]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속담을 인용하여 자신의 말에 설득력을 붙여놓고 있다.
- ② [B]는 다른 인물의 공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기 공을 함께 내세우지만, [C]는 다른 인물의 공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공만 내세우고 있다.
- ③ [D]는 다른 인물들 간의 반목을 중재하려고 애쓰지만, [E]는 오히려 다른 인물들 간의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
- ④ [A] ~ [D]는 모두 사물의 열거를 통해 자기 역할을 과장되게 부풀리고 있다.
- ⑤ [B] ~ [E]는 모두 다른 인물의 역할은 과소평가하면서 자기 역할을 추켜세우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른바 소위 규중 칠우(閨中七友)는 부인들의 방 안에 있는, 일곱 벗이다. 글하는 선비는 필묵과 종이, 벼루를 문방사우(文房四友)로 삼았으니, 규중 여자인들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오.

이러므로 바느질을 돕는 것을 각각 이름을 정하여 벗으로 삼았다. 바늘을 ‘세요(細腰) 각시’라 하고, 자는 ‘척(威) 부인’이라 하고, 가위를 ‘교두(交頭) 각시’라 하였다. 또 인두를 ‘인화(引火) 부인’이라 하고, 다리미를 ‘울(熨) 낭자’라 하며 실을 ‘청홍흑백(靑紅黑白) 각시’라 하고, 골무를 ‘감투 할미’라 하여 칠우로 삼았다. 규중 부인들이 아침에 제수하고 머리를 빗고 나면 칠우가 일제히 모여 함께 의논하여 각각 맡은 소임을 끝까지 해냈다.

하루는 칠우가 모여 바느질의 공을 의논하였다.

척 부인이 긴 허리를 재며 말했다.

“여러 벗은 들어라. 나는 가는 명주, 굵은 명주, 흰 모시, 가는 베, 아름다운 비단을 다 내어 펼쳐 놓고 남녀의 옷을 마름질할 때, 길고 짧음, 넓고 좁음이며 솜씨와 격식을 내가 아니면 어찌 이루겠는가? 이리므로 옷을 만드는 공은 내가 으뜸이다.” <중략>

“인화야. ㉠너와 나는 맡은 일이 같다. 그러나 인화는 바느질뿐이다. 나는 천만 가지 옷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알미운 여자들은 하루 할 일도 열흘이나 한 곳에 멍치어 놓고, 살이 구깃구깃한 것을 나의 넓은 불기로 한 번 스치면 굵은 실이 날날이 퍼지며 제도와 모양이 고와진다. 더욱 여름철을 만나면 손님이 많아 하루도 한가하지 못하는데 의복이 내가 아니면 어찌 고와지겠는가? 더욱 빨래하는 여자들이 게을러 풀 먹여 넣어 두고 잠만 자며 부딪쳐 말린 것을 나의 넓은 불기 아니면 어찌 고우며, 세상 남녀들이 어찌 구김살 없는 것을 입으리오. 이리므로 옷을 만드는 공이 내가 제일이다.”

㉡규중 부인이 말했다.

“칠우의 공으로 의복을 만드나, 그 공이 사람의 쓰기에 있으니 어찌 칠우의 공이라 하리오.”

하고 칠우를 밀치고 베개를 돋워 깊이 잠이 들었다.

척 부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매정한 것이 사람이고 공 모르는 것은 여자로다. 의복의 옷감을 자를 때는 먼저 찾고 이루어 내면 자기 공이라 한다. 게으른 종의 잠을 깨우는 막대는 내가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내 허리 부러지는 것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화나지 않으리오.”

교두 각시 이어 말하였다.

“그대 말이 옳다. 옷을 마름질하여 베어 낼 때는 나 아니면 못하지마는 잘 드니 안 드니하며 내던진다. 두 다리를 각각 잡아 흔들 때는 불쾌하고 노여운 것을 ㉢어찌 측량하리오.”

세요 각시 한숨짓고 말하였다.

“너는 물론이거니와 나 역시 일찍이 무슨 일로 사람의 손에 보채이며 요망하고 간악한 말을 듣는가? 뼈에 사무치게 원한이 맺힌다. 나의 약한 허리 휘두르며 날랜 부리 돌려 힘껏 바느질을 돕는 줄을 모르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의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넣으니 어찌 통탄하고 원통하지 않으리오. 사람과는 극한 원수이지만 값을 길이 없어 이따금 손톱 밑을 찢어 피를 내어 원한을 풀면 조금 시원하다. 그러나 ㉣간사하고 흉악한 감투 할미가 만류하니 더욱 애달프고 못 견딜 일이다.”

인화가 눈물지어 말했다.

“그대가 아프다 어떻다 하지만 나는 무슨 죄로 불에 달구어지는 형벌을 받아 붉은 불기운에 낮을 지지고 굳은 것을 깨뜨리는 일을 나에게 다 시키니 삶고 괴롭기는 측량하지 못하겠구나.”

울 낭자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말했다.

■ 핵심 정리

갈래	설명문	성격	예시적, 사실적, 분석적
제지	소비자 잉여		
주제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통해 알아 본 소비자 잉여의 개념과 특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내용을 (인용)하여 경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함. 		

■ 구성

처음	‘포그’가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된 계기
종간 ①	우여곡절 끝에 80일간의 세계 일주에 성공한 ‘포그’
종간 ②	(소비자 잉여)의 개념과 특성
끝	저마다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잉여의 가치

■ 포인트

1. ‘포그’의 위기와 대처 방안

위기	대처 방안
인도 횡단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지 않음.	2,000파운드를 주고 (코끼리)를 사서 밀림을 헤쳐 나감.
홍콩에서 태평양 횡단선을 놓침,	하루에 100파운드를 주는 조건으로 수로 안내선을 빌려 상하이에 가서 태평양 횡단선을 탐.
미국에서 대륙 횡단 열차를 놓침.	썰매를 빌려 뚝을 달아 개조하여 다른 열차로 갈아탐.
대서양 횡단 기선을 놓침.	1인당 2,000파운드를 주는 조건으로 화물선 ‘(양리에타호)’를 빌림.
‘양리에타호’의 연료가 떨어짐.	60,000달러를 주고 ‘양리에타호’를 사서 배의 나무 부분을 연료로 씀.

2. 소비자 잉여의 개념과 특성

개념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격인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 판매되는 가격인 시장 가격을 뺀 금액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자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없을 때 소비자 잉여가 발생함.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소비자는 (시장)을 이용하여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있음.

목표인 학습 활동

1 '포그'가 직면한 여러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자.

	상황	해결 방안
인도 뭍바이	80km가량 횡단 철도가 놓여 있지 않음.	2,000파운드를 주고 대체 교통 수단으로 코끼리를 구매하여 여정을 재촉함.
인도 밀림 지대	화형 위기에 처한 아우다 부인을 발견함.	'아우다 부인'을 구하고, 이후 부인은 여행에 동행함.
홍콩	태평양을 횡단하는 배를 놓침.	하루 100파운드를 주는 조건으로 수로 안내선을 빌려 상하이로 가서 태평양을 건너는 배를 탐.
미국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 갈아타야 할 열차를 놓침.	썰매를 빌리고 썰매에 돛을 달아 달린 끝에 결국 다른 열차로 갈아탐.
미국 대륙 횡단 후	대서양 횡단 기선을 놓침.	1인당 2,000파운드를 내는 조건으로 프랑스 보르도까지 가는 화물선 앙리에타호에 탑승하고, 연료가 부족해지자 배를 60,000달러에 구입함.

2 맞는 내용에 O표 하며, 소비자 잉여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자.

지불 용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 낮은**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공급자가 상품을 **독점해서 판매할 때** 독점해서 판매하지 않을 때,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상품 가격을 달리 책정하기 **정확히 알 수 없어 상품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 이때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갖고 싶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살 경우,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 최소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가격과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익 / 손해** 부분을 말한다. 이런 경제 원리에 따르면 **높은 / 낮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사람은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다고 할 수 있다.

3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이 글을 다양한 기준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해 보자.

- 잉여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 그래프, 표 등 믿을 만한 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하였는가?
- 소비자 잉여라는 주제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주제인가?

- 소설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지불 용의 가격의 개념을 설명하고,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에 대한 예시와 그래프 자료 등을 제시하여 쉽게 설명하였다.
- 소비자 잉여는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일상적인 현대 사회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경제 원리에 따라 소비자가 이득을 얻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개념이다.
- 소비자 잉여를 설명하기 위해 소설의 내용을 언급한 방식은 적절한가? 소설의 내용을 인용하여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 개념을 소개한 점이 참신하고 흥미롭다. 하지만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소비자 잉여를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

5 다음 글에 소개된 인물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 보자.

앨프리드 마셜은 1842년 영국 런던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일찍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은 마셜은 특별 장학생으로 오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제안을 뿌리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그는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로 손꼽히는 영국의 국민 대다수가 가난으로 허덕이는 현실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수학만으로는 풀 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현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경제학 연구를 시작한다.

마셜의 가장 뛰어난 업적은 수학적 추론을 동원하여 역사와 도덕의 일부로 치부되던 경제학을 엄밀한 과학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마셜은 1890년에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동시대 최고의 경제학자라는 명성을 얻게 된다. 마셜이 『경제학 원론』에서 강조한 것은 상품의 가격과 생산량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균형에서 교차하는 것은 마치 가위의 양날이 중심에서 교차하는 것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다. 오늘날 가격의 변화를 파악하려는 경제학자들이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모두 마셜의 분석 방법을 따른 것이다. 오늘날 한계 효용을 비롯하여 소비자·생산자 잉여, 수요·공급 곡선 등 미시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대부분 개념은 그의 『경제학 원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자의 1실링과 가난한 자의 1실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은 같지 않다.”라고 말한 마셜은 틈만 나면 빈민가로 달려갔다. 1885년 케임브리지 대학에 최초로 경제학과가 신설되고, 그 과의 교수가 된 앨프리드 마셜은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긴다. “경제학자는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따뜻한 가슴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조영관, 『경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지식 105』

(1) '엘프리드 마셜'의 업적과 그에 담긴 사회문화적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산업 혁명이 확산되던 19세기 중반 영국은 경제적 계층이 상류층과 노동자층으로 뚜렷하게 나뉘었고, 빈부 격차가 심해졌으며, 노동자들과 자본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증기 기관이 발명되고 철도가 부설되는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이 사회·문화의 중심이 되는 시대였다. 마셜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심화되던 빈부 격차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경제 현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2) 밑줄 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자.

경제학자는 학문으로써 경제 현상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기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태도로 현상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경제학자로 설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두원 필연

[143쪽 6~7행] 매일 똑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30도의 물로만 면도를 하는 필리어스 포그는 29도의 물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하인을 해고한다.

→ 포그의 괴짜 같은 면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일화이다. 포그는 이 사건 이후 파스파르투를 새 하인으로 고용한다.

[143쪽 9~11행] 혁신 클럽에서 포그는 우연히 세계 일주와 관련된 논쟁에 휩쓸리고, 결국 80일 안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2만 파운드(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억 원)를 건 내기를 하게 된다.

→ 포그가 세계 일주를 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다. 포그는 세계 일주와 관련된 논쟁에 우연히 휩쓸리게 되었고, 80일이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날 고용한 새 하인 파스파르투와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된다.

[144쪽 2~4행] 그러나 곧바로 첫 번째 위기에 처한다. 영국 신문에서는 인도 횡단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었다고 보도했었는데, 실제로는 약 80km 구간에 철길이 놓여 있지 않았다.

→ 포그는 계획보다 이틀이나 빨리 인도 뭄바이에 도착한다. 하지만 영국 신문에서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고 보도된 인도 횡단 철도가 부분적으로만 개통된 상태여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포그 일행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찾게 된다.

[144쪽 5~8행] 일정을 지키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찾던 포그와 파스파르투는 한 인도인에게 코끼리를 빌려 여정을 재촉하려 한다. 그러나 코끼리 주인은 시간당 40파운드라는 금액을 제시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자 포그는 1,000파운드를 주고 코끼리를 아예 사겠다고 제안한다.

→ 포그는 일정에 맞추어 콜카타로 가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으로 코끼리를 찾았다. 포그는 서커스에서 재주를 부리던 코끼리를 빌리려고 하지만 돈에 눈이 먼 코끼리 주인은 포그의 절박한 상황을 눈치채고 높은 금액을 제안할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는다.

[144쪽 11~14행] 필리어스 포그는 1,200파운드, 1,500파운드, 1,800파운드로 차츰 가격을 올리다가 마침내 2,000파운드를 제시했다. 평소에는 그렇게 불그스름하던 파스파르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2,000파운드에 인도인은 손을 들었다.

→ 포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가격을 주고서라도 코끼리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를 본 하인 파스파르투는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인도인은 흡족하게 거래를 마쳤다.

[145쪽 1~3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만 파운드를 건 내기이고, 내기에서 이기려면 코끼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값의 스무 배를 주고서라도 코끼리를 반드시 살 것이라고 대답한다.

→ 포그가 코끼리를 사는 데에 2,000파운드라는 돈을 쓰게 된 까닭이 밝혀지는 대목이다. 포그에게는 80일 안에 세계 일주

를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주고서라도 코끼리를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145쪽 5~8행] 그러던 중 일행은 브라만교도들에게 화형을 당할 위험에 처한 아우다 부인을 만나게 된다. 끊어진 철길 때문에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그 일행은 그녀를 구한다. 그리고 아우다 부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포그의 호의에 감동하여 그와 동행하기로 한다.

→ 여태까지 일정을 맞추는 데에만 신경을 썼던 포그는 의외의 모습을 보인다. 브라만교에는 남편이 죽어서 시체를 화장할 때, 그 부인도 함께 화형을 하는 ‘사티’라는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에 따라 화형을 당할 위험에 처한 아우다 부인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포그 덕분에 목숨을 구한 아우다 부인은 포그의 여행에 함께하게 되며, 이 두 사람은 후에 결혼 약속을 한다.

[145쪽 9행] 포그 일행은 인도를 떠난 이후에도 갖가지 난관에 부딪힌다.

→ 글쓴이는 포그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겪은 위기 상황과 대처 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포그는 배를 놓치거나,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 갈아타야 할 열차를 놓치는 등 위기를 겪지만 그 때마다 경로를 수정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등 기지를 발휘한다.

[146쪽 7~10행] 포그는 세계 일주를 떠나기에 앞서 상세한 계획표를 작성했지만,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대체 교통수단을 가진 이들에게 상품이 시장에서 그때그때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며 여행을 지속해 나간다.

→ 포그의 세계 일주를 경제 개념과 연결 지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포그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위기에 대처했던 방식을 경제학 용어로 다시 한 번 풀이하고 있다.

[146쪽 11~15행] 이를 경제학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포그의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은 다른 일반 여행객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불 용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 포그가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보통의 교통수단 이용 요금보다 많은 돈을 낼 의사가 있었던 것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이 다른 여행객보다 매우 높다’고 풀이하며, ‘지불 용의 가격’의 정의를 밝히고 있다.

[146쪽 18~20행] 즉, 포그는 굉장히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들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여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 것이다.

→ 포그는 일정에 차질이 없을 때에는 자신의 지불 용의 가격보다 훨씬 낮은, 시장 가격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 소비자 잉여의 관점으로 보면 포그가 지불하려고 마음먹은 가격보다 저렴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한 상황이므로, 결과적으로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46쪽 21~23행]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우표는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 하지만 같은 우표 한 장이라고 해도 소비자 잉여가 생각하는 지불 용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 시장 가격과 지불 용의 가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체국에서 우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지만 구매자가 그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지불 용의 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46쪽 27행~147쪽 2행]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경우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과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부분, 즉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소비자 잉여는 어떤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익 즉,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시장 가격을 뺀 금액이며,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려면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지불 용의 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47쪽 17~19행]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포그와 같이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사람은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다고 할 수 있다.

→ 글쓴이는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려는 소비자 A와 B를 예로 든다. 지불 용의 가격이 각각 다른 A와 B의 소비자 잉여를 비교하면서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리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47쪽 20~21행] 반대로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이에 맞춰 상품 가격을 달리 책정한다면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글쓴이는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에 따라 상품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여 판매하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뒤이어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힌다.

[147쪽 26~28행] 이처럼 각 소비자에게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없을 때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경쟁적 시장이 소비자에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 글쓴이는 현실적으로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에 맞춰 시장 가격을 책정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앨프리드 마셜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8쪽 3~7행] 포그는 상금으로 2만 파운드를 받았지만, 여행 중에 약 1만 9,000파운드를 써 버렸다. 그리고 나머지 1,000파운드는 하인 파스파르투와, 자신을 은행 강도로 오해하여 여행을 방해했던 픽스 형사에게 주었기 때문에 포그가 실제로 얻은 금전적 소득은 거의 없었다.

→ 글쓴이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포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포그가 교통수단에 대해 지불 용의 가격이 높았던 것은 상금으로 받을 2만 파운드가 있었기 때문임을 밝히며 포그가 무엇 때문에 내기에 참여했던 것인지 독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48쪽 9~11행] 그러나 포그는 세계 일주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했을 체험을 수없이 했으며,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이익을 얻었다. 런던으로 돌아와 아우다 부인과 결혼을 약속한 것이다.

→ 글쓴이는 포그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값진 경험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8쪽 13~15행] 포그처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만큼의 가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나름의 소비자 잉여를 얻고 돌아올 것이다.

→ 글쓴이는 여행을 떠나면 지불하려고 예상한 금액보다 더 값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글을 끝맺고 있다.

문항 읽기

1. ‘포그’가 만난 코끼리 주인의 태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포그가 제안한 시간당 40파운드라는 금액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그가 점차 가격을 올리면서 코끼리를 아예 사겠다고 제안하자, 코끼리 주인은 최종적으로 2,000파운드에 코끼리를 판다.

2. ‘포그’ 일행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용한 교통 수단은 무엇인가?

열차, 코끼리, 배, 개조한 썰매

3. 세계 일주를 하며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했을 때 ‘포그’는 어떻게 여행을 지속해 나갔는가?

대체 교통수단을 가진 이들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하며 여행을 지속해 나갔다.

4. 소비자 잉여는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시장 가격보다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사람이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 잉여를 누리게 된다.

5. ‘포그’가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하며 얻은 것은 무엇인가?

포그는 금전적 소득은 거의 얻지 못했지만 세계일주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했을 수많은 체험과 아우다 부인과의 결혼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이익을 얻었다.

백지 노트

시험 공부의 마지막은 백지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써 보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포그는 세계 일주를 떠나기에 앞서 상세한 계획표를 작성했지만,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대체 교통수단을 가진 이들에게 상품이 시장에서 그때 그때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며 여행을 지속해 나간다. 내기에서 이겨야만 하는 포그로서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경제학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포그의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은 다른 일반 여행객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불 용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위기 상황에서 포그는 과감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가 항상 높은 가격을 지불했던 것은 아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을 때는 당연히 다른 일반 여행객들과 같은 가격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즉, 포그는 굉장히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들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여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우표는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 하지만 같은 우표 한 장이라고 해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지불 용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우표값 몇백 원을 아까워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한 장의 우표에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표 수집광도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은 어떤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익을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경우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과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부분, 즉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중략)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포그와 같이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사람은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이에 맞춰 상품 가격을 달리 책정한다면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중략)

기업이 어떤 상품을 독점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품질이 같은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팔린다. 이처럼 각 소비자에게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없을 때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경쟁적 시장이 소비자에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부천고등학교 (경기)

1. 윗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반적으로 품질이 같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 용의 가격은 동일하겠군.
- ② 기업이 재화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도 소비자 잉여에 영향

을 줄 수는 없겠군.

- ③ 포그는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도 큰 소비자 잉여를 누렸겠군.
- ④ 한 소비자의 어떤 재화에 대한 가치 인식이 달라지면 그 재화에 대한 소비자 잉여가 달라질 수 있겠군.
- ⑤ 경쟁적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시장이 생산자보다 소비자에게 더 큰 이득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

부천고등학교 (경기)

2. <보기>는 ㉠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현상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묶음 상품 : 소비자가 지불하고 싶은 개당 가격은 구매량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낮아진다. 구매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많이 사는 사람들에게 총액 대비 개당 가격을 낮추어 줌으로써 소비자가 더 많이 사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 역경매 : 경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구매 의사를 밝히면 많은 판매자들이 가격을 제시하고 구매자가 최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낙찰하는 것이다. 비행기의 좌석이나 호텔 객실 등의 상품은 특성상 팔리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역경매 상품이다.
-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기 :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판매 지역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전략을 쓰기도 하는데 소비자들이 이러한 것을 역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 ① 소비자는 역경매를 통해 낙찰된 최저가 상품을 구입하여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있다.
- ② 헐값으로라도 팔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역경매에 참여할 것이다.
- ③ 삼각 김밥 두 개를 사면 하나를 무료로 줄 경우, 소비자의 구매 심리에 영향을 미쳐 지불 용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
- ④ 구입하는 물건의 수가 많아질수록 소비자의 개당 지불 용의 가격이 낮아지는 이유는 총 지불 금액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이다.
- ⑤ 동일 상품의 가격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때 소비자는 그 상품을 싸게 파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실제 지불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경남)

3. 다음은 윗글을 공부한 선생님과 학생간의 대화이다. 학생이 할 말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 지금까지 우리는 소비자 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더하면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까요? 생산자 잉여란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득의 크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K가 총 400원의 비용을 들여 연필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 연필의 시장가격이 600원이라면 생산자 잉여는 200원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연필을 산 A, B, C의 경우를 표로 정리한 것을 보고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학생 : () (단위 : 원)

소비자	지불용의 가격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A	1,200	㉠	200
B	1,000	400	㉡
C	800	㉢	㉣

- ① 그렇다면 A의 소비자 잉여 ㉠은 600원이 되겠군요.
- ② C가 가지게 되는 소비자 잉여 ㉢은 생산자 잉여와 같겠군요.
- ③ C가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이 가장 크겠네요.
- ④ 시장 가격이 같고 생산 비용이 같다면 ㉡, ㉣은 동일한 가격이 되겠네요.
- ⑤ 결론적으로 소비자 A, B, C와 생산자 K는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모두 이익을 보았군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포그의 세계 일주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계획 보다. 이틀이나 빨리 인도 뭍바이에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첫 번째 위기에 처한다. 영국 신문에서는 인도 횡단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약 80km 구간에 철길이 놓여 있지 않았다.

(나) 일정을 지키기 위해 ㉡ 교통수단을 찾던 포그와 파스파르트는 한 인도인에게 코끼리를 빌려 여정을 재촉하려 한다. 그러나 코끼리 주인은 시간당 40파운드라는 금액을 제시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자 ㉢ 포그는 1,000파운드를 주고 코끼리를 아예 사겠다고 제안한다. 포그 일행과 동행한 영국 육군 준장은 코끼리 주인이 값을 더 올리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라고 충고한다.

(다) 포그 일행은 인도를 떠난 이후에도 갖가지 난관에 부딪힌다. 홍콩에 도착한 포그 일행은 일본 요코하마로 이동하여 태평양 횡단선을 탈 계획이었지만, 배를 놓치고 만다. 포그는 ㉣ 하루에 100파운드를 주는 조건으로 수로 안내선을 빌려 상하이로 향했고, 가까스로 태평양을 건너는 배에 올라탄다. 우여곡절 끝에 ㉤ 미국에 도착한 포그 일행은 대륙 횡단 열차를 탄다. 그러던 도중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 갈아타야 할 기차를 놓치자 썰매를 빌리고, 썰매에 돛을 달아 ㉦ 하 여 달린 끝에 결국 다른 열차로 갈아탄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45분 차이로 대서양 횡단 기선을 놓치고 만다. 포그는 항구를 둘러보다. 프랑스 보르도까지 가는 화물선 '앙리에타호'를 발견한다.

(라) ㉧ '앙리에타호'의 선장은 태워 달라는 포그 일행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지만, 1인당 2,000파운드의 돈을 제시하자 결국 승낙한다. 대서양 항해를 하던 도중 연료가 떨어지자, ㉨ 포그는 만든 지 20년 된 5만 달러짜리 배 '앙리에타호'를 6만 달러의 거금을 주고 산다. 그런 후에 배의 나무로 된 부분을 연료로 사용하며 항해를 마친다. 이처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영국에 도착한 포그는 약속 된 시간 바로 직전에 기적적으로 혁신 클럽 돌에 들어선다.

(마) 위기 상황에서 포그는 과감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가 항상 높은 가격을 지불했던 것은 아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을 때는 당연히 다른 일반 여행객들과 같은 가격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즉, 포그는 굉장히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들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여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 것이다.

(바)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은 어떤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익을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경우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과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부분, 즉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사) 예를 들어,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얼마까지 돈을 낼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다고 ㉩ 해보자. A 소비자는 1,500원까지는 지불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B 소비자는 1,000원까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A와 B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각각 1,500원과 1,000원이다. 그런데 상인이 사과의 가격이 한 개에 500원이라고 말한다면, A 소비자는 1,0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고 B 소비자는 5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A 소비자는 사과 한 개를 사 먹기 위해서 1,500원까지는 돈을 낼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500원만 지불했고, B 소비자는 1,000원까지는 돈을 낼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500원만 지불했기 때문이다. 이때 각각 1,000원과 500원의 ㉪ 을 경제 이론에서 소비자 잉여라고 말하며, A와 B 소비자 중 소비자 잉여가 큰 A 소비자가 시장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포그는 세계 일주를 떠나기에 앞서 상세한 계획표를 작성했지만,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대체 교통수단을 가진 이들에게 상품이 시장에서 그때그때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며 여행을 지속해 나간다. 내기에서 이겨야만 하는 포그로서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경제학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포그의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은 다른 일반 여행객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불 용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나) 위기 상황에서 포그는 과감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가 항상 높은 가격을 지불했던 것은 아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을 때는 당연히 다른 일반 여행객들과 같은 가격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즉, 포그는 굉장히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들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여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우표는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 하지만 같은 우표 한 장이라고 해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지불 용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우푼값 몇백 원을 아까워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한 장의 우표에도 수백만원,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표 수집광도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은 어떤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익을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경우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과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부분, 즉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마) 예를 들어,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얼마까지 돈을 낼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다고 가정해 보자. A 소비자는 1,500원까지는 지불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B 소비자는 1,000원까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A와 B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각각 1,500원과 1,000원이다. 그런데 상인이 사과의 가격이 한 개에 500원이라고 말한다면, A 소비자는 1,0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고 B 소비자는 5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A 소비자는 사과 한 개를 사 먹기 위해서 1,500원까지는 돈을 낼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500원만 지불했고, B 소비자는 1,000원까지는 돈을 낼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500원만 지불했기 때문이다. 이때 각각 1,000원과 500원의 덤을 경제 이론에서 소비자 잉여라고 말하며, A와 B 소비자 중 소비자 잉여가 큰 A 소비자가 시장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포그와 같이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사람은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다고 할 수

있다.

수락고등학교 (서울)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 잉여의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다.
- ② ㉠과 같이 행동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기에 이기기 위해서이다.
- ③ 경제학 개념을 통해 소비자에게 바람직한 경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 ④ 문학 작품을 인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어려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마)로 보아 ㉡의 전제 조건은 상품의 공급자가 각 소비자에게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수락고등학교 (서울)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와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을 추론하여 쓰시오.

<보기>

아이들 그룹 A의 친필 사인이 담긴 음반에 대해 그 그룹의 팬인 윤선이는 최대 5만원까지 낼 용의가 있고, 유명인의 친필 사인이 담긴 음반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 지인이는 최대 3만원까지 낼 용의가 있으며, 선희는 친필 사인이 있다고 해서 원가보다 더 비싼 돈을 내고는 굳이 그 음반을 구입하고 싶지 않다.

원래 그 음반의 정가대로 구입했다고 할 때, 지인이가 얻은 소비자 잉여가 13,000원이었다면, 그 음반의 원래 가격은 (㉢)원이며, 이 셋 모두가 그 음반을 원래 가격대로 주고 샀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중 가장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 사람은 (㉣)이다.

수락고등학교 (서울)

9. 윗글을 읽고 ㉤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80일간의 세계 일주』로 돌아가서, 포그는 2만 파운드의 상금을 염두에 두고 배포 있게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부름으로써 매 순간 위기를 극복했고, 마침내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포그는 상금으로 2만 파운드를 받았지만, 여행 중에 약 1만 9,000파운드를 써 버렸다. 그리고 나머지 1,000파운드는 하인 파스파르투와, 자신을 은행 강도로 오해하여 여행을 방해했던 픽스 형사에게 주었기 때문에 포그가 실제로 얻은 금전적 소득은 거의 없었다.

혹자는 ㉠포그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포그는 세계 일주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했을 체험을 수없이 했으며,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이익을 얻었다. 런던으로 돌아와 아우다 부인과 결혼을 약속한 것이다. 소설의 작가 쥘 베른은 소설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이보다 더 작은 것을 위해서라도 세계 일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펜대를 내려놓는다. 포그처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만큼의 가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나름의 소비자 잉여를 얻고 돌아올 것이다.

<조건>

1. ㉠을 표면적 측면 한 가지와 이면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윗글을 근거로 하여 서술하시오.
2. 각각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작성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은 어떤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익을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경우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과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부분, 즉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얼마까지 돈을 낼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다고 가정해 보자. A 소비자는 1,500원까지는 지불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B 소비자는 1,000원까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A와 B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각각 1,500원과 1,000원이다. 그런데 상인이 사과의 가격이 한 개에 500원이라고 말한다면, A 소비자는 1,0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고 B 소비자는 5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A 소비자는 사과 한 개를 사 먹기 위해서 1,500원까지는 돈을 낼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500원만 지불했고, B 소비자는 1,000원까지는 돈을 낼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500원만 지불했기 때문이다. 이때 각각 1,000원과 500원의 덤을 경제 이론에서 소비자 잉여라고 말하며, A와 B 소비자 중 소비자 잉여가 큰 A 소비자가 시장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포그와 같이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사람은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이에 맞춰 상품 가격을 달리 책정한다면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어떤 극장에서 같은 등급의 좌석 요금을 지불 용의 가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한다면, 관람객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다른 극장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어떤 상품을 독점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품질이 같은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팔린다. 이처럼 각 소비자에게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없을 때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경쟁적 시장이 소비자에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 박정호,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2』

관양고등학교 (경기)

1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개념과 관련된 현상의 원인을 시간과 공간을 대비하여 파악하고 있다.
- ② 특정 개념과 관련하여 대조되는 사례를 소개하고 그 중한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 ③ 특정 개념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 직접 관찰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여러 가지 구체적 사례로부터 특정 개념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 보편적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특정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된 예시를 통해 그 특성을 설명한 뒤 그 가치를 밝히고 있다.

관양고등학교 (경기)

11. 위 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불 용의 가격이 낮은 소비자일수록 더 많은 소비자 잉여를 누리겠군.
- ② 소비자 잉여는 지불 용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때 발생하겠군.
- ③ 할인 정책으로 인해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겠군.
- ④ 경쟁적 시장에서 기업이 소비자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여 책정하기는 어렵겠군.
- ⑤ 독점시장은 가격 책정의 주도권이 생산자에게 있어서 생산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시장이겠군.

■ 핵심 정리

갈래	논설문	성격	예시적, 인용적, 설득적
제지	문화의 합리성		
주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저마다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인류학자)의 주장과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임. •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예로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도움. 		

■ 구성

서론	문화와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합리성의 기준
본론 ①	문화적 배경에 따른 소비문화
본론 ②	환경적 합리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음식) 금기
결론	오랜 지혜이자 특수한 환경에서 축적한 귀한 지식인 문화

■ 포인트

1. 문화적 배경에 따른 소비 문화

문화적 배경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환생과 업보와 자비를 통해 공덕을 쌓는 불교 문화권임. • 현세에서 다른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위세와 존경을 얻으며, 내세에서 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북부 미얀마 사람들은 (승려)를 위한 만찬이나 종교적 의례, 탑 쌓는 일 등에 많은 돈을 지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 중심의 사회임. • 지위 경쟁이나 과시를 위해, 그리고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인도, 방글라데시, 이슬람 국가들, 피지의 원주민 마을에서는 (혼례) 시 많은 의례 비용을 지출함.

문화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소비는 합리적임.

2. 음식 금기와 관련된 인도와 이슬람 문화권의 특징과 발생 배경

	인도인	이슬람교도
특징	소고기를 먹지 않음.	돼지고기를 먹지 않음.
발생 배경	인도의 소는 식량을 두고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며, 노동력, 연료, 비료, 우유, 가죽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도인은 소를 (숭배)하고, 소고기를 먹지 않음.	돼지고기가 선모충증이나 탄저병을 유발할 수 있고, 유목 생활이나 반 정착 농경을 하는 생활 특성상 사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음.

문화권 학습 활동

1 이 글에 소개된 여러 사회문화권의 특성을 이해해 보자.

(1) 소비에 대한 여러 사회의 특성과 그에 담긴 사회적 신념을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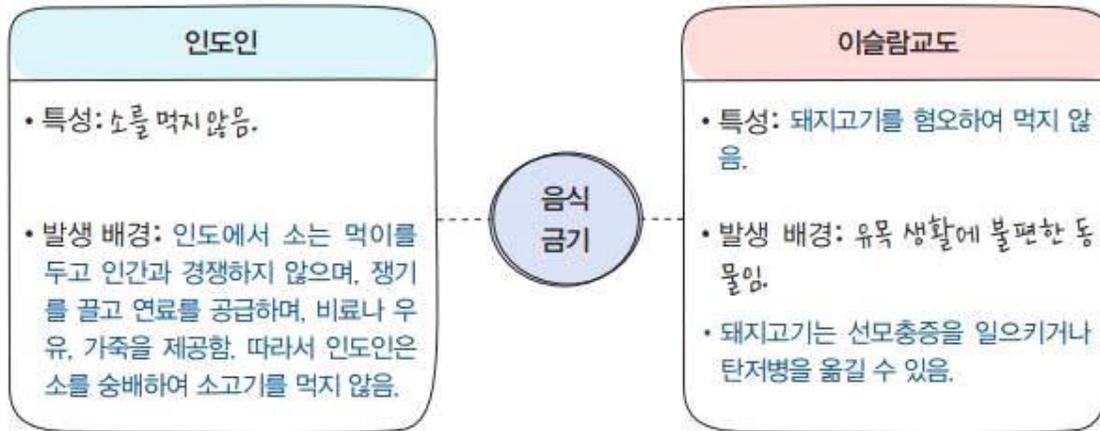
북부
미얀마

돈을 저축하여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재산을 소비하는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일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공덕을 쌓는 불교 신념을 실천하는 것을 중시한다. 따라서 그들은 승려를 위한 만찬이나 종교적 의례, 탑을 쌓는 일 등에 소비하는 것을 합리적이라 여긴다.

방글라데시,
인도

친족 중심 사회인 인도나 방글라데시에서는 의례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 그들은 지위 경쟁이나 과시를 위해 그리고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2) 음식 금기와 관련된 각 문화권의 특성과 그 발생 배경을 적어 보자.



(3) 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각 사회문화권마다 상이한 문화가 발생하는 까닭을 합리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환경에 맞게 인식과 가치, 욕망을 키우며, 문화도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환경 조건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사회·문화권마다 상이한 문화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합리성이 문화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2 [여량][모름] 다음 두 학생의 대화를 참고하여, 챔바가 마링족의 카이코 축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

축제를 여는 이유는 사육하는 돼지의 수가 많아지면 사람과 돼지가 경작물을 놓고 갈등 관계에 놓이고, 이웃 간에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해. 따라서 정기적으로 축제를 열어 돼지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지. 나는 챔바가 마링족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을 사

그렇구나. 나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돼지를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돼지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돼지를 팔거나 돼지의 성별에 따라 우리를 분리해서 수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1) 챔바가 마링 족의 카이코 축제에 대한 두 학생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

<p>여학생</p> <p>챔바가 마링족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생태학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방법인 카이코 축제를 열어 돼지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있다.</p>	<p>남학생</p> <p>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사람들이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돼지를 도살하는 축제를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p>
--	--

3 다음 글을 읽고, 한글 창제라는 역사적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해 보자.

(1) 한글이 창제된 배경을 ㉠과 ㉡에서 찾아 정리해 보자.

㉠ 한글 창제의 두드러진 동기는 민족적 자주정신이다. 이는 곧 고유 문자를 만들어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 문화적으로 독립해야겠다는 자주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의미이다.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던 거란, 여진, 몽골 등의 몇몇 민족은 이미 이 문화권에서 벗어나고자 고유 문자를 만든 바 있다. 요(遼)를 세운 거란은 920년 대소(大小) 거란 문자를 만들었고, 금(金)을 세운 여진은 1119년 대소 여진 문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원(元)을 세운 몽골은 1269년 파스파 문자를 제정·반포하였다. 한글 창제도 이러한 일련의 탈한문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박갑수, 「훈민정음의 창제와 그 주변 이야기」

㉡ 세종의 한글 창제와 정조의 한글 활용은 왕실의 필요에 의해서였을 뿐 백성의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한글을 백성의 힘이 성장하면서 얻은 수확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한글이 민중적 가치를 실현해 온 역사적 맥락을 해석한 결과이지 당대의 창제 동기라 보기는 어렵다. 새로 창제된 한글은 『운서』를 번역하거나 한자로 쓰인 불경이나 유교 경전을 풀어 쓰는 등 철저하게 중세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활용되었다. 한글이 백성의 문자로 자리 잡은 것은 한글 소설이 유행하고 한글의 쓰임이 확대되는 임진왜란 이후였다.

- 최경봉, 『한글 민주주의』

㉔: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던 몇몇 민족이 고유 문자를 만들며 탈한문화를 시도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고유 문자를 만들어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 문화적으로 독립해야겠다는 민족적 자주정신을 바탕으로 한글이 창제된 것이다.

㉕: 한글은 『운서』를 번역하거나 한자로 쓰인 불경이나 유교 경전을 풀어 쓰는 등 철저하게 중세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왕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2) 한글이 창제되지 않았다면 문자 생활을 비롯한 우리의 사회-문화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해 보자.

- 여전히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외국에서 한류(韓流)라 불리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 한자를 계속 사용하거나 영어가 한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을 것 같다.

두림 읽기

[153쪽 6~8행] 인간은 합리적 동물인가? 만약 그렇다면 합리성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합리성의 기준과 내용이 서로 다른가?

→ 글쓴이는 우선 인간을 합리적 동물이라고 가정하고, 그 합리성의 기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합리성의 기준이 보편적인 것인지, 상대적인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153쪽 10~12행]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지만 그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와 욕망도 마찬가지이다.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합리적인 것이다.

→ 글쓴이는 자신이 던진 합리성의 기준에 대한 물음의 답을 곧바로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 욕망 나아가 문화까지도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153쪽 15~17행] 그의 관찰에 의하면, 북부 미얀마의 가난한 농부들은 서구인이 봤을 때 불필요한 일들에 수입 대부분을 지출한다. 대개 종교적인 의례나 승려들을 위한 만찬, 정교한 탑을 쌓는 일 등이다.

→ 글쓴이는 문화에 따라 합리성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저명한 인류학자인 스피로의 연구를 예로 들고 있다. 스피로는 북부 미얀마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그들이 종교 의례나 승려들을 위한 만찬 등 종교적인 지출을 위해 수입의 대부분을 사용하지만, 그들의 문화를 고려한다면 이들의 지출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154쪽 1~2행] 그들은 불교문화라는 맥락에서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 스피로는 미얀마인들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종교적 지출을 하는 것이 현생에서 다른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위세와 존경을 얻으며, 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일이라고 여긴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소비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154쪽 12~15행] 친족 중심 사회에서는 의례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에서 치르는 결혼식 비용은 그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미얀마의 불교문화와 그들의 소비를 첫 번째 예로 들었던 글쓴이는 두 번째로 친족 중심 사회의 의례 비용을 예로 들고 있다. 인도, 방글라데시, 피지의 원주민 마을의 성대한 의례에 대해 설명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154쪽 20~24행] 이러한 소비는 합리적인 행위인가? 이에 대해 인류학자들은 이들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세를 유지하기 위

5-(2) 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

해 소비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위 경쟁이나 과시를 위해, 그리고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 글쓴이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며 주의를 환기하고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인도, 방글라데시, 이슬람 국가 등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은 지위 경쟁, 과시, 공동체적 의무 등 친족 중심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따른 것이라며 이들의 소비 역시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154쪽 25~27행] 이처럼 어떤 관습을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는 일은 대개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 관념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 글쓴이는 친족 중심 사회의 소비문화를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현대 서구화된 사람들의 의례적 소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즉, 소비하는 형태와 대상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비슷한 목적에 따라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155쪽 1~2행]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다른 문화권의 관행도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고안해 낸 현명한 행동임을 깨닫는 경우도 많다.

→ 글쓴이는 인도의 소고기 금기와 이슬람교도의 돼지고기 금기를 이야기하면서 생태적 환경에 따른 문화의 합리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글쓴이는 이들 문화에서 음식 금기를 행하는 것이 환경적 지혜가 뒷받침된 것이라고 말하며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155쪽 8~10행] 마빈 해리스는 인도인이 소를 먹지 않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민족이라고 해석한다.

→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도인이 암소를 숭배하고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생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인도의 소는 식량을 두고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노동력, 연료, 비료, 우유, 가죽 등을 제공한다. 인도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55쪽 17~18행] 또한, 문화 상대주의를 이해하는 데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와 상징체계가 문화마다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사례도 없다.

→ 생태학적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예는 이슬람교도의 돼지고기 금기이다. 위에서 언급한 인도인의 소고기 금기는 '숭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슬람교도의 돼지고기 금기는 '혐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155쪽 23~24행]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것도 단순히 종교적 금기 때문만은 아니다.

→ 글쓴이는 돼지고기가 선모충증이나 탄저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돼지가 유목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가축이라는 점을 들어 돼지 사육이 중동 지방의 자연 생태계와 문화 공동체를 깨뜨릴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슬람교도는 돼지를 혐오하고,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56쪽 2~3행] 반면에 중국과 대다수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돼지는 매우 특별하고 좋은 동물이다.

→ 글쓴이는 중국이나 남태평양 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생태학적 전략에 따라 같은 동물을 혐오하기도 하고, 숭배하기도 함을 설명하고 있다.

[156쪽 7~12행] 인류학자 로이 라파포트는 뉴기니 고산 지대에 사는 챔바가 마링족의 '카이코'라는 돼지 축제를 연구하였다. 이 축제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거의 일 년 동안이나 계속된다고 한다. 돼지의 수가 늘어나면 돼지가 받을 훼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웃과 싸움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부족 사람들은 축제를 열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감지하고, 카이코 축제를 연다.

5-(2) 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

→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마지막 근거로 인류학자 로이 라파포트의 연구를 제시하였다. 라파포트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첼바가 마링족은 돼지의 수가 늘어나 부족 내, 부족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 '카이코' 축제를 열어 돼지 대부분을 잡아 식량, 제물 등으로 활용하면서 돼지의 수를 조절한다고 한다.

[156쪽 15~17행] 이처럼 돼지 축제는 마링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활동에 적당한 인구수 및 가축 수와 그 분배, 더 나아가서는 부족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인 것이다.

→ 카이코 축제는 돼지의 수가 늘어나 사람들의 갈등이 심화되면 시작된다. 축제 기간에 도살된 돼지들은 식량, 제물로 활용된다. 로이 라파포트와 이 글의 글쓴이는 이러한 축제가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름의 기준에서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156쪽 20~22행] 각 문화는 저마다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다른 합리성이야말로 각 문화가 지니고 있는 오랜 지혜이자, 특수한 환경 조건에서 적응하면서 축적한 귀한 지식인 것이다.

→ 글쓴이는 각 문화가 나름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합리성이 오랜 지혜이자 특수한 환경 조건에서 적응하면서 축적한 귀한 지식이라고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심화 탐구 문제

1. 친족 중심 사회에서 집단의 의례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위 경쟁 혹은 과시를 위해, 그리고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2. 마링족이 돼지 축제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돼지의 수가 증가하면 돼지가 밭을 훼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웃과 싸움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돼지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 돼지 축제를 벌이는 것이다.

백지 노트

시험 공부의 마지막은 백지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써 보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화 상대주의 논쟁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어떻게 ㉠ 규정할 것 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은 합리적 동물인가? 만약 그렇다면 합리성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합리성의 기준과 내용이 서로 다른가?

결론부터 말하면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행동 환경은 아주 다르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지만 그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와 욕망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합리적인 것이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스피로는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증권 투자보다도 종교적인 지출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의 관찰에 의하면, 북부 미얀마의 가난한 농부들은 서구인이 봤을 때 불필요한 일들에 수입 대부분을 지출한다. 대개 종교적인 의례나 승려들을 위한 만찬, 정교한 탑을 쌓는 일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 행위가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은 불교문화라는 맥락에서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여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재산을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일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환생과 업보와 자비를 통해 공덕을 쌓는 불교 신념을 실천한다. 이러한 신념 때문에 그들이 승려를 위한 만찬이나 종교적 의례, 탑 쌓는 일 등에 돈을 지출하는 것은 현세에서 다른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위세와 존경을 얻으며, 내세에서 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친족 중심 사회에서는 의례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에서 치르는 결혼식 비용은 그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나 이슬람 국가들의 혼례를 보자. 이들은 일주일 내내 음식을 풍족하게 차려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는 데에 많은 의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피지의 원주민 마을에서도 혼례를 치를 때 소 다섯 마리, 돼지 세 마리, 닭 서른 마리, 전통 음료인 양고나 수십 킬로그램, 의례용 혼수품과 생활용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잔치를 즐긴다. 이러한 소비는 합리적인 행위인가? 이에 대해 인류학자들은 이들 사회에서 자신들의 ㉡ 위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 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위 경쟁이나 과시를 위해, 그리고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관습을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는 일은 대개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 관념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들은 의례적 소비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현대인의 소비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다른 문화권의 관행도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 고안해 낸 현명한 행동임을 깨닫는

경우도 많다.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인도인이 소를 숭배하고,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데에서 비롯된 종교적 음식 금기를 환경적 합리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피상적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 금기로만 이해될 수 있는 암소 숭배와 음식 금기의 이면에는 효과적으로 소를 이용하는 지혜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마빈 해리스는 인도인이 소를 먹지 않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민족이라고 해석한다. 인도의 소는 쟁기를 끌고 연료를 공급하며 비료·우유·가죽을 제공한다. 인도의 소가 경작지와 식량을 두고 인간과 경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인도의 암소들은 생태계에서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이 남긴 쓰레기와 찌꺼기를 남김없이 치워 주고 우유를 생산해 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그러니 암소를 숭배하고 소고기를 먹지 않는 금기에도 환경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문화 상대주의를 이해하는 데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와 상징체계가 문화마다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 좋은 사례도 없다. 이슬람교도는 흔히 ‘이 세상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짐승 같은 야만인들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신성한 인간들이 있다.’라고 말한다. 이들은 세계를 야만과 문명, 이교도와 이슬람교도로 구분하는데, 이를 판정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돼지고기 금기를 지키는가 여부이다.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것도 단순히 종교적 금기 때문만은 아니다. 돼지고기는 선모충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치명적인 탄저병을 옮길 수도 있어 중동 지방에서 매우 위험한 음식이다. 또, 돼지 사육은 중동 지방의 자연 생태계와 문화 공동체를 깨뜨릴 위험이 있다. 유목 생활을 하거나 반 정착 농경을 하는 아랍인들에게 돼지는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돼지를 끌고는 어디든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종교적 금기에는 생태학적인 전과 합리성도 있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과 대다수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돼지는 매우 특별하고 좋은 동물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대부분 돼지를 방목하여 기르는데, 집안이나 부엌에 돼지가 들어오는 것은 보통이고 애완동물 이상으로 인간과 가고 친근하여 인간과 돼지가 함께 살아간다. 또한 돼지를 조상신에게 바치는 가장 귀한 의례용 동물로 숭배하기도 한다.

인류학자 로이 라파포트는 뉴기니 고산 지대에 사는 첼바가 마링족의 ‘카이코’라는 돼지 축제를 연구하였다. 이 축제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거의 일 년 동안이나 계속된다고 한다. 돼지의 수가 늘어나면 돼지가 밭을 훼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 옷과 싸움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부족 사람들은 축제를 열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감지하고, 카이코 축제를 연다. 이 시기에는 기르고 있던 돼지 대부분을 잡아 식량으로 활용 한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두세 달 이내에 다른 부족과 전쟁을 벌여 남아있는 지들을 제물로 바치는 데 쓰고, 조상신에게 올리는 제사에도 활용한다. 그 후, 남아 있는 돼지를 다시 키운다. 이처럼 돼지 축제는 마링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활동에 적당한 인구수 및

가축 수와 그 분배, 더 나아가서는 부족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인 것이다.

이처럼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숭배하는 사람들도 각각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인 논리가 있다. 돼지 때나 혐오를 단순히 종교적 금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각 문화는 저마다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다른 합리성이야말로 각 문화가 지니고 있는 오랜 지혜이자, 특수한 환경 조건에서 적응하면서 축적한 귀한 지식인 것이다.

- 이태주, 「문명과 야만을 넘어서 문화 읽기」

백영고등학교 (경기)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 여러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 ㉣ 이론의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定意)하고 있다.
 - ㉤ 통념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여 열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백영고등학교 (경기)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얀마 사람들에게 종교적 지출은 증권 투자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일 수 있다.
- ②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 관념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 ③ 이슬람교도의 돼지고기 금기는 단순히 종교적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생태학적 전략과 합리성의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 ④ 친족 중심 사회에서 의례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과 현대인의 의례적 소비 행태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 ⑤ 이슬람 교도의 돼지고기 금기와 첼바가 마링족의 '카이코' 축제는 합리성이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백영고등학교 (경기)

3.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떤 사회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에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도록 하자. 아마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없게 될 텐데, 이는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지금 몇 시인지 물어본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4시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당신은 그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을 말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대답에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없다. 사실, 당신에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극단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들끼리의 의사소통 없이는 복잡한 사회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사회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어떤 복잡한 사회에서든 진실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중략)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모든 사회에는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덕률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할 수 있다. 거짓말과 살인에 대한 규칙은 그러한 도덕률의 예이다. 그리고 이 규칙은 모든 존속 가능한 사회에서 유효하다는 것이 발견된다. 문화마다 어떤 규칙을 합법적인 예외로 인정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더 큰 주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간의 차이점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오류이다. 모든 도덕률이 사회마다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 ② 윗글은 <보기>와 달리 자신의 주장을 먼저 밝힌 후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보기>는 윗글과 달리 '가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④ 윗글과 <보기>는 모두 각 문화가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윗글은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입장을 따르고 있고, <보기>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입장을 따르고 있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백영고등학교 (경기)

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 ② ㉡ : 지위와 권세를 아울러 이르는 말.
- ③ ㉢ :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냄.
- ④ ㉣ :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함.
- ⑤ ㉤ : 수준이나 정도 따위가 매우 높거나 뛰어난.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국의 인류학자인 스피로는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증권 투자보다도 종교적인 지출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 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의 관찰에 의하면, ㉠북부 미얀마의 가난한 농부들은 서구인이 봤을 때 불필요한 일들에 수입 대부분을 지출한다. 대개 종교적인 의례나 승려들을 위한 만찬, 정교한 탑을 쌓는 일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 행위가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은 불교문화라는 맥락에서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여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재산을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일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환생과 업보와 자비를 통해 공덕(功德)을 쌓는 불교 신념을 실천한다. 이러한 신념 때문에 그들이 승려를 위한 만찬이나 종교적 의례, 탑 쌓는 일 등에 돈을 지출하는 것은 현세에서 다른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위세와 존경을 얻으며, 내세에서 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나) 친족 중심 사회에서는 의례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에서 치르는 결혼식 비용은 그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나 이슬람 국가들의 혼례를 보자. 이들은 일주일 내내 음식을 풍족하게 차려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는 데에 많은 의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피지의 원주민 마을에서도 혼례를 치를 때 소 다섯 마리, 돼지 세 마리, 닭 서른 마리, 전통 음료인 양고나 수십 킬로그램, 의례용 혼수품과 생활용품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잔치를 즐긴다. 이러한 소비는 합리적인 행위인가? 이에 대해 인류학자들은 ㉡이들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위 경쟁이나 과시를 위해, 그리고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다른 문화권의 관행(慣行)도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고안(考案)해 낸 현명한 행동임을 깨닫는 경우도 많다.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인도인이 소를 숭배하고,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데에서 비롯된 종교적 음식 금기를 환경적 합리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피상적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금기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앞 소 숭배와 음식 금기의 이면에는 효과적으로 소를 이용하는 지혜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라)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것도 단순히 종교적 금기 때문만은 아니다. 돼지고기는 선모충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치명적인 탄저병을 옮길 수도 있어 중동 지방에서 매우 위험한 음식이다. 또, 돼지 사육은 중동 지방의 자연 생태계와 문화 공동체를 깨뜨릴 위험이 있다. 유목 생활을 하거나 반 정착 농경을 하는 아랍인들에게 지는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돼지를 끌고는 어디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종교적 금기에는 생태학적인 전략과 합리성도 있는 것이다.

(마) 인류학자 로이 라파포트는 뉴기니 고산 지대에 사는 챔바가 마링족의 '카이코'라는 돼지 축제를 연구하였다. 이 축제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거의 일 년 동안이나 계속된다고 한다. 돼지의 수가 늘어나면 돼지가 밭을 훼손(毀損)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웃과 싸움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부족 사람들은 축제를 열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감지(感知)하고, 카이코 축제를 연다. 이 시기에는 기르고 있던 돼지 대부분을 잡아 식량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두세 달 이내에 다른 부족과 전쟁을 벌여 남아 있는 돼지들을 제물로 바치는 데 쓰고, 조상신에게 올리는 제사에도 활용한다. 그 후, 남아 있는 돼지를 다시 키운다. 이처럼 ㉤돼지 축제는 마링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활동에 적당한 인구수 및 가축 수와 그 분배, 더 나아가서는 부족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인 것이다.

- 이태주, 「문명과 야만을 넘어서 문화 읽기」

관양고등학교 (경기)

5. 위 글의 서술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나의 사례를 매개로 하여 여러 가지 개념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 ② 예외적인 문화 현상을 통해 새로운 이론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문화적 관행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문화 상대주의의 개념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 ⑤ 각 문화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저마다의 합리성이 있음을 근거로 설득하고 있다.

관양고등학교 (경기)

6. ㉠ ~ ㉤ 중 <보기>와 관점이 같은 것은?

<보기>

이처럼 어떤 관습을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는 일은 대개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 관념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 ① ㉠ ② ㉡
- ③ ㉢ ④ ㉣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화 상대주의 논쟁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은 합리적 동물인가? 만약 그렇다면 합리성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합리성의 기준과 내용이 서로 다른가?

결론부터 말하면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행동 환경은 아주 다르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지만 그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와 욕망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합리적인 것이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스피로는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증권 투자보다도 종교적인 지출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의 관찰에 의하면, 북부 미얀마의 가난한 농부들은 서구인이 봤을 때 불필요한 일들에 수입 대부분을 지출한다. 대개 종교적인 의례나 승려들을 위한 만찬, 정교한 탑을 쌓는 일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 행위가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은 불교문화라는 맥락에서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여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재산을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일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환생과 업보와 자비를 통해 공덕을 쌓는 불교 신념을 실천한다. 이러한 신념 때문에 그들이 승려를 위한 만찬이나 종교적 의례, 탑 쌓는 일 등에 돈을 지출하는 것은 현세에서 다른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위세와 존경을 얻으며, 내세에서 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친족 중심 사회에서는 의례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에서 치르는 결혼식 비용은 그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나 이슬람 국가들의 혼례를 보자. 이들은 일주일 내내 음식을 풍족하게 차려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는 데에 많은 의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피지의 원주민 마을에서도 혼례를 치를 때 소 다섯 마리, 돼지 세 마리, 닭 서른 마리, 전통 음료인 양고나 수십 킬로그램, 의례용 혼수품과 생활용품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잔치를 즐긴다. 이러한 소

비는 합리적인 행위인가? 이에 대해 인류학자들은 이들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위 경쟁이나 과시를 위해, 그리고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관습을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는 일은 대개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 관념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들은 의례적 소비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현대인의 소비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해분성고등학교 (경남)

7.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다.
- ② 인류학자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 ③ 문화를 바라보는 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④ 자신의 주장을 서론에서 미리 언급하고 난 후 본문에서 그 근거를 들고 있다.
- ⑤ 문화를 바라보는 기준 중 ‘합리성’이라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해분성고등학교 (경남)

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성은 그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다.
- ② 각 문화의 합리성은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 환경을 고려하여 생각해야 한다.
- ③ 북부 미얀마의 가난한 농부들이 의례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 ④ 서구인들에 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의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 ⑤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기는 물질적 이익보다 위세 유지나 공동체적 의무를 더 중시하기도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화 상대주의 논쟁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은 합리적 동물인가? 만약 그렇다면 합리성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합리성의 기준과 내용이 서로 다른가?

결론부터 말하면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행동 환경은 아주 다르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지만 그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와 욕망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합리적인 것이다.

(나) 미국의 인류학자인 스피로는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증권 투자보다도 종교적인 지출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의 관찰에 의하면, 북부 미얀마의 가난한 농부들은 서구인이 봤을 때 불필요한 일들에 수입 대부분을 지출한다. 대개 종교적인 의례나 승려들을 위한 만찬, 정교한 탑을 쌓는 일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 행위가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은 불교문화라는 맥락에서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여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재산을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일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환생과 업보와 자비를 통해 공덕을 쌓는 불교 신념을 실천한다. 이러한 신념 때문에 그들이 승려를 위한 만찬이나 종교적 의례, 탑 쌓는 일 등에 돈을 지출하는 것은 현세에서 다른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위세와 존경을 얻으며, 내세에서 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다) 문화 상대주의를 이해하는 데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와 상징체계가 문화마다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 좋은 사례도 없다. 이슬람교도는 흔히 ‘이 세상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짐승 같은 야만인들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신실한 인간들이 있다.’라고 말한다. 이들은 세계를 야만과 문명, 이교도와 이슬람교도로 구분하는데, 이를 판정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돼지고기 금기를 지키는가 여부이다.

(라)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것도 단순히 종교적 금기 때문만은 아니다. 돼지고기는 선모충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치명적인 탄저병을 옮길 수도 있어 중동 지방에서 매우 위험한 음식이다. 또, 돼지 사육은 중동 지방의 자연 생태계와 문화 공동체를 깨뜨릴 위험이 있다. 유목 생활을 하거나 반 정착 농경을 하는 아랍인들에게 지는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돼지를 끌고다니는 어디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종교적 금기에는 생태학적인 전략과 합리성도 있는 것이다.

(마) 반면에 중국과 대다수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돼지는 매

우 특별하고 좋은 동물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대부분 돼지를 방목하여 @기르는데, 집안이나 부엌에 돼지가 들어오는 것은 보통이고 애완동물 이상으로 인간과 가깝고 친근하여 인간과 돼지가 함께 살아간다. 또한 돼지를 조상신에게 바치는 가장 귀한 의례용 동물로 숭배하기도 한다.

나루고등학교 (경기)

9.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지를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 ② 화제를 소개한 후,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 ③ 주장을 제시한 후, 예상되는 반증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주장의 근거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⑤ 주제를 제시한 후,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있다.

나루고등학교 (경기)

1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합리성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점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 ② 미얀마 사람들의 종교적 지출은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것이다.
- ③ 이슬람교도들의 돼지고기 금기 이면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 ④ 중국과 대다수의 남태평양 섬나라에서는 돼지를 신성시하여 먹지 않는다.
- ⑤ 문화 상대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를 지켜야 한다.

나루고등학교 (경기)

11. (가) ~ (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사회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합리성의 기준
- ② (나) : 미얀마 사람들의 지나친 과소비문화
- ③ (다) : 이슬람교도의 종교적 돼지고기 금기
- ④ (라) : 생태학적 전략에 따른 돼지고기 금기
- ⑤ (마) : 돼지를 특별하게 여기는 문화권

■ 핵심 정리

	㉠ 나무의 힘	㉡ 이탈리아 기행
갈래	논설문	기행문
성격	설득적	감상적, 예찬적
제재	아프리카의 나무와 숲	(베네치아)의 역사와 현재 모습
주제	자연의 신성성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	자연을 극복하고 이용하여 이룩한 도시인 베네치아에 대한 예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부족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함. (아프리카)의 지역적 특색이 잘 드러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네치아를 여행하면서 느낀 것을 날짜순으로 기록함. 베네치아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 등을 섬세한 묘사를 바탕으로 설명함.

■ 구성

㉠ 나무의 힘

서론	관습적으로 나무를 보호하는 케냐 사람들
본론 ①	(나무)를 숭배하게 된 생태학적·종교적 근거
본론 ②	사펠리나무가 쓰러지는 광경을 본 글쓴이의 심경
결론	나무와 숲에 대한 글쓴이의 당부

㉡ 이탈리아 기행

여정 ①	(베네치아)의 전체적인 인상
여정 ②	자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했던 베네치아인들에 대한 인상과 당부

■ 포인트

1. ㉠ 나무의 힘

나무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태도와 자연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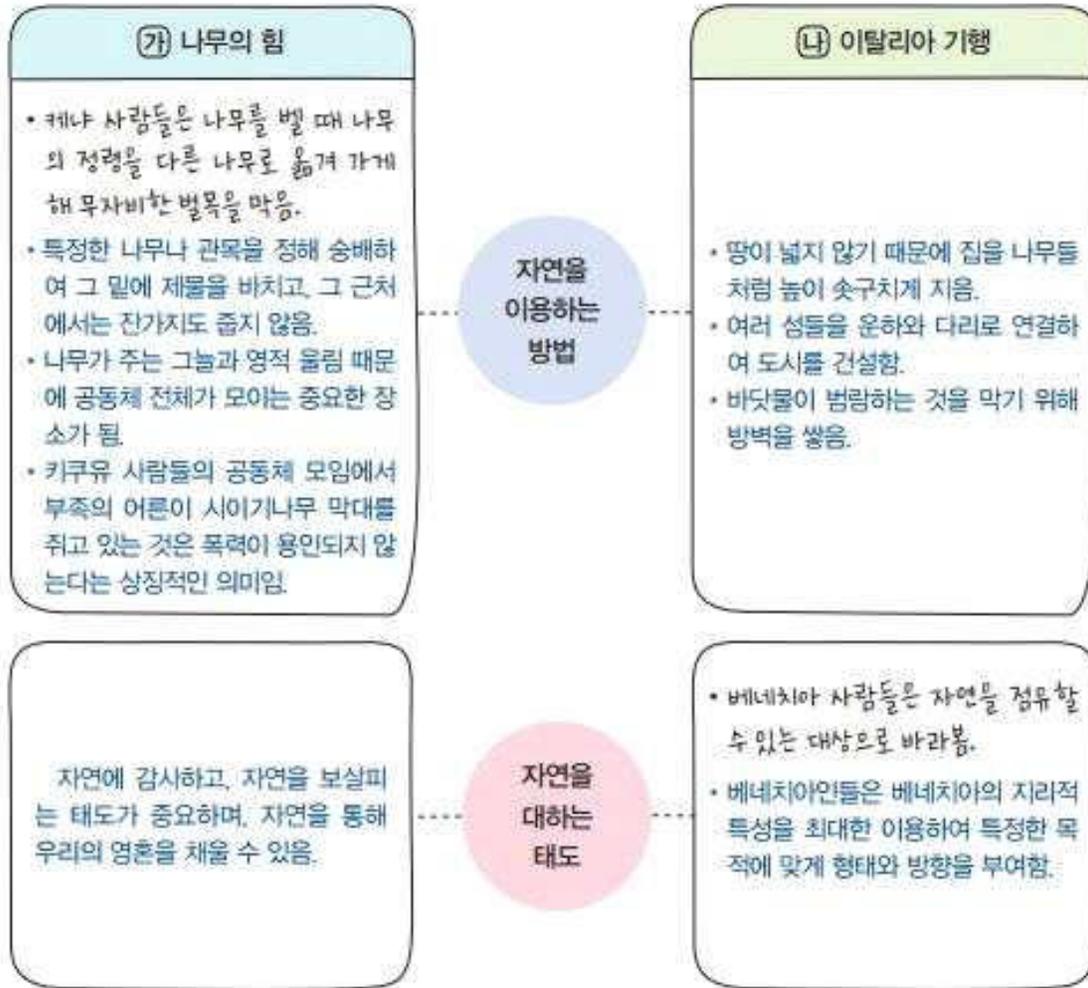
아프리카에서 나무를 숭배하는 이유	→	자연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무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빗물을 땅에 저장하고 순환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함. 식량과 약재, 건축 재료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생명체 가운데 하나로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은 우리의 영혼을 채움. 자연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을 잊고, 우리의 영혼도 시들어버림. (자연)은 한 번 사라지면 결코 되찾을 수 없음.

2. ㉡ 이탈리아 기행

베네치아의 지리적 특성과 글쓴이의 자연관

베네치아의 지리적 특성	→	글쓴이의 자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이 거리와 광장, 산책로를 대신함. 운하들이 이리저리 교차하고, 그 위로는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음. 골목길은 대부분 좁고, 집은 나무처럼 위로 솟구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이 이미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자연이 멋대로 공격하거나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함. 인간은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연을 (관리)해야 함.

1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 '나무의 힘' 과 ㉡ '이탈리아 기행' 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2 지역별 사회문화의 특성이 ㉠ '나무의 힘' 과 ㉡ '이탈리아 기행' 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자.

(1) 다음 글을 참고하여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말해 보자.

자연에 압도된 긴 역사를 통해 볼 때 인간의 세계는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은 자연에 적응하는 노력을 거듭해 오다가 스스로 문화를 창출했다. 아프리카인들은 자연에 적응할 뿐 아니라 하늘, 땅 그리고 강과 숲, 풍부한 야생 동물과 식물들을 모두 전통 종교 의식을 통해 인간의 정신세계와 깊숙이 연관시켰다.

- 유종현, 『아프리카의 부족과 문화』

가의 글쓴이는 아프리카 케냐 사람으로서 자연을 인간의 정신세계와 깊숙이 연관시키며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나무와 숲을 보호해야 하며, 자연을 잃으면 우리의 영혼마저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 다음 글을 참고하여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베이컨의 말은 곧 자연의 법칙이나 원리를 알게 되면 그것을 활용하여 자연을 지배하고 개발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자연이란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최대한 개발하고 지배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 손철성, 『베이컨의 신기관』

나의 글쓴이는 자연을 지배하고 개발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서양의 보편적 자연관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글에서도 베네치아인들이 자연적 특성을 활용하여 운하를 짓고, 긴 지협인 리도에 방벽을 쌓아 바닷물의 범람을 막는 등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다음은 고향을 주제로 하여 고향의 방언으로 지은 시이다. 이를 참고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돌할으방 곱닥하게 생경
돌할으방 어딜 감수광	큰 감튀도 써아지곡
어드레 어떻 혀연 감수광	놋은 박박 얽으곡
이레 갔닥 저레 갔닥	큰 무사 경 크곡
저레 갔닥 이레 갔닥	눈방울은 무사사 경 큼광
아명 아명 혀여 뽕써	홀메긴 무사 경 솔친디
이디도 기정 저디도 기정	곱닥하게도 잘 생겼써
저디도 바당 이디도 바당	든직헝곡 든직헝게
바당드레 감수광 어드레 감수광	돌할으방이여 돌할으방이여
아무디도 가지 말앙	돌할으방만 민영 살암찌
이 섬을 지켜 줍써	돌할으방 어딜 감수광
제주섬을 슬퍼 줍써	아무디도 가지 말앙
이 섬의 구신이 되어 줍써	제주섬을 슬퍼 줍써

- 김광협,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1) 이 시에 나타난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밑에 보자.

- 성문 밖의 수호신 기능을 했던, 제주 민속 신앙의 상징인 돌하르방을 제재로 삼았다.
- 제주 방언을 사용하여 시를 지었다.
- 돌하르방이 제주 섬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기복 신앙이 드러난다.

주요 문단

가. 나무의 힘

[161쪽 9~12행] 케냐 사람들은 이 보존림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나무를 베었지만, 관습적으로 덤불이 자란 곳이나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곳 위주로 집을 짓거나 거기서 땔감을 구했을 뿐 더 크고 곧은 나무들에는 손대지 않았다.

→ 글쓴이는 자신의 고향인 케냐의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케냐 사람들의 관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케냐 사람들은 최대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가 울창하지 않은 곳에 집을 지었고, 땔감을 구할 때에는 크고 곧은 나무 대신 덤불을 주로 이용하였다.

[161쪽 16행~162쪽 3행] 그리고 정령이 다른 나무로 옮겨 간 뒤에야 이 나무들을 벨 수 있었다. 사람들은 베어낼 나무에 나뭇가지를 기대어 놓았다가 다른 나무로 옮기거나, 나무를 베자마자 그 자리에 곧바로 또 다른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나무의 정령을 다른 나무로 옮겨 가게 했다.

→ 글쓴이는 케냐 사람들이 나무에 정령이 있다고 믿었으며 정령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썼다고 밝힌다. 이러한 조심스러움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였음을 드러낸다.

[162쪽 5~8행] 많은 공동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무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나무나 관목을 정하고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 그 밑에 제물을 바쳤다. 키쿠유 사회에서는 이런 나무 가운데 하나가 무구모라 불리는 무화과나무였다.

→ 글쓴이가 국가가 아닌 부족 공동체 단위로 사회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속해 있던 키쿠유 사회에서는 무화과나무를 신성시했다고 밝히며 아프리카 특유의 자연 숭배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162쪽 14행~163쪽 1행] 깊이 뺨은 무화과나무 뿌리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고 순환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한다. 따라서 무화과나무를 죽이거나 해치면, 흙이 불안정해지고 물의 저장과 방출이 어려워진다.

→ 글쓴이는 특정 나무를 숭배하는 것을 생태학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아프리카의 생태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깊이 뺨은 무화과나무는 빗물을 저장하고 순환시켜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키쿠유 사람들은 무화과나무를 숭배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63쪽 5~7행] 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생명체 가운데 하나이므로, 인류가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글쓴이는 많은 공동체에서 나무를 실용적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나무에 정신적 가치를 부여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생명체 중 하나인 나무가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163쪽 8~11행] 가나 남부의 많은 공동체는 백단향과 이로코, 리아나를 성스럽게 인식한다. 특히 가나 은코란자와 말라위 일대에 있는 신성한 숲들과 요루바족 여신 오순에게 바쳐진 나이저리아 오쇼그보 근처의 숲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유네스코에서 세계 유산으로 지정했다.

→ 글쓴이의 공동체 중심의 사회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한 이로코, 리아나 등 아프리카에서 성스럽게 여기는 나무의 이름을 열거하고, 가나와 나이저리아 등에서 신성시되는 여러 숲을 언급함으로써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알 수 있다.

[163쪽 19~21행] 이런 관례는 평화 협정에 조인하는 것만큼이나 구속력을 지녔고, 공동체 내부에서 그리고 공동체끼리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 글쓴이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의 관례가 갖는 힘을 ‘평화 협정’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관례가 평화 유지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5-(3)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163쪽 23~25행] 나는 어느 날 콩고에서 200년 된 사펠리나무가 땅에 쓰러지는 광경을 보고, 무척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다. 나무가 쓰러질 때 전 세계 모든 나무와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메아리가 울렸다.

→ 글쓴이는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훼손하는 현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200년 된 사펠리나무를 베는 광경을 직접 본 날, 전 세계 모든 나무와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메아리를 들었다며 자신의 경험과 그때 느낀 심경을 서술하고 있다.

[164쪽 2~7행] 캄캄한 흙과 눈부신 햇살과 촉촉한 물기에서 양분을 얻는 그런 여정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도, 나무는 여전히 신비로운 구석이 있다. 그렇게 위엄 있고 영구적인 생명이 그토록 작고 여린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니. 뿌리는 아래로 가지는 위로 뻗은 모습은 아름답기만 하고, 그 복잡다단한 자연 변화는 우리의 과학 기술이 아무리 정교하게 발전해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 글쓴이는 생명의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나무를 예찬한다. 손바닥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작은 씨앗에서 비롯되었지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강건한 유기체로 자라는 나무의 삶, 그리고 하늘과 땅으로 뻗어나가는 나무의 섬세한 변화를 언급하며 나무의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다. 글쓴이는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필요에 의해 무분별하게 벌목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비판하고자 한다.

[164쪽 8~9행] 사펠리나무에서 나온 목재의 절반 이상이 연기로 사라진다는 사실에 나는 당혹스러웠다.

→ 글쓴이는 앞서 사펠리나무가 잘리는 광경을 보고 나무의 생명력을 떠올리며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것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어 여러 동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오던 강인한 나무가 벌목되어 절반 이상이 연기로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알고는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164쪽 13~14행] 하지만 이제 그 나무는 없다. 살아 있기보다는 죽어야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 글쓴이는 나무의 생명력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나무를 베는 사람들을 단호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죽은 나무가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여기는 현 세대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독자는 문맥을 통해 글쓴이가 나무와 자연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이 글을 썼음을 파악할 수 있다.

[164쪽 16~18행] 우리가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보살피려면 그것과 직접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 자연을 보고 냄새 맡고 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을 잊을 것이고, 우리 영혼도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

→ 글쓴이는 자연을 직접 만나는 일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 이유는 자연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자연을 잊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시들며, 자연에 감사하고 보살피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164쪽 19~22행] 불행하게도 요즘 아이들은 자연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나무 한 그루 심어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을 즈음에는 이미 때가 늦었을 것이다. 신성한 숲은 한번 사라지면 결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 글쓴이는 자연을 거의 접하지 못한 요즘 아이들이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는 숲은 한번 사라지면 결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숲이 사라지기 전에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 이탈리아 기행

[165쪽 3~4행] 베네치아에서 무엇보다도 내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민중이다. 필연적이고 무의식적인 존재인 거대한 대중 말이다.

→ 글쓴이는 베네치아를 여행하며 도시를 이룩한 민중의 힘에 주목하고 있다. 글쓴이는 베네치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으며,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여 번창하고 부유해진 베네치아의 민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165쪽 11행 ~166쪽 4행] 점차 집들이 뻑뻑이 들어서고, 모래땅과 늪지는 암석처럼 단단한 지반으로 바뀌어 갔다. 집들은

5-(3)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조밀하게 심어진 나무들처럼 높이 솟구쳤다. 옆으로 확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람이란 마땅히 한 치의 땅이라도 탐이 나는데, 처음부터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도, 양편의 집들을 분리하고 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폭으로밖에 내지 않았다. 어쨌거나 그들에게는 물이 거리와 광장과 산책로를 대신했다.

→ 베네치아의 지리적 특성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무른 지반을 단단한 인공 지반으로 바꾸었고, 집을 높이 짓고, 골목길도 좁게 내며 지리적 한계를 극복했다. 또한 섬과 섬으로 이어져 물이 거리와 산책로를 대신한다.

[166쪽 10~12행] 식사를 마치고 우선 도시 전체의 인상을 확실히 포착하기 위해 서둘러 숙소를 나섰다. 그리고 안내자도 없이 동서남북의 방위만을 확인하면서 도시의 미로 속으로 들어섰다.

→ 글쓴이가 베네치아에서 길을 나서는 부분으로, 여정에 해당하는 기행문의 특성이 드러난다. 글쓴이는 이곳저곳을 다닌 후 도시 전체가 좁고 번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166쪽 20~23행]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곳에 '무라치'라고 하는, 바다에 맞서는 거대한 방벽을 건설 중이다. 사람들은 돌 블록으로 이 방벽을 쌓고 있다. 이것은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는,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협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글쓴이는 '무라치'라는 방벽이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는 '리도'라는 지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건설 이유를 지리적 환경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166쪽 24~27행] 연안은 오래된 자연의 산물이다. 먼저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에 이어서 태곳적 바다의 수면이 점차 낮아진 결과, 아드리아해의 위쪽 끝부분에 광활한 늪이 형성되었다. 그 늪은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지만 썰물 때에는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 글쓴이가 연안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베네치아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6쪽 27행~167쪽 4행] 인간의 기술은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접수했으며, 그리하여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섬으로 에워싸인 베네치아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은 썰물 때에도 주요 지점에 전함을 댈 수 있도록 늪에다 깊은 운하를 준설하였다.

→ 글쓴이가 베네치아의 탄생을 간략히 요약하여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베네치아 사람들이 기술, 노력, 비용을 들여 적극적으로 도시를 건설했음을 알 수 있다.

[167쪽 5~6행] 옛날 사람들이 지혜와 노력으로써 고안해 내고 실행한 것을, 이제는 현재의 우리가 그에 못지않은 지혜와 노력으로써 보존해야 할 것이다.

→ 글쓴이는 옛날 사람들이 자연을 극복하고 개척한 도시를 현재의 우리가 그에 못지않은 지혜와 노력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자연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7쪽 13~14행] 그러나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지협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 글쓴이는 만일의 상황을 가정하여 방벽을 건설하고, 리도를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카스텔로와 키오자 근처의 두 군데 바닷길 이외에 다른 곳으로 바닷물이 들어온다면 마을이 침수되고, 소통로도 막혀 버리며, 섬들이 지협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때 글쓴이의 예측은 인간이 이미 구축해 놓은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68쪽 1~5행] 그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이미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5-(3)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 글쓴이의 자연관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글쓴이는 자연보다 인간을 우위로 두고, 인간이 이미 점유한 것을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168쪽 10~13행] 어쨌든 베네치아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베네치아를 천 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고, 그들은 또 운하를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글쓴이는 베네치아의 바닷물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베네치아 사람들 또한 운하를 현명하게 관리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문명 문명 문명

1. 키쿠유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벌목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벌목을 했다.

2. 글쓴이는 왜 인류가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한 것이 놀랍지 않다고 했는가?

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생명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3. 글쓴이는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보살피기 위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보았는가?

글쓴이는 자연과 직접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4. 베네치아 사람들이 '무라치'라는 방벽을 건설한 이유는 무엇인가?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는, '리도'라는 길다란 지협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5. 글쓴이가 리도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인간이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한다면 소통로가 막히고 리도가 섬으로 바뀌는 등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백지 노트

시험 공부의 마지막은 백지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써 보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00년대 초 숲이 우거져 있던 케냐의 고원 지대는 토질이 뛰어나 농작물 생산량이 풍부했고 비교적 인구 밀도가 높았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드넓은 보존림을 가꾸었는데, 그곳에는 코끼리와 표범, 물소, 그 밖에 다른 동물들이 수없이 많이 살았다. 케냐 사람들은 이 보존림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나무를 베었지만, 관습적으로 덤불이 자란 곳이나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곳 위주로 집을 짓거나 거기서 땀감을 구했을 뿐 더 크고 곧은 나무들에는 손대지 않았다.

케냐 사람들이 크고 곧은 나무를 보호한 데에는 나무에 정령이 깃들여 있다는 믿음 또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키쿠유 사람들은 베어지지 않고 서 있는 나무를 ‘숲의 벌목에 저항하는 나무’라는 뜻인 무레마키리티라 불렀으며, 베어진 나무들의 정령이 이 나무들에 깃들었다고 여겼다. 그리고 정령이 다른 나무로 옮겨 간 뒤에야 이 나무들을 벨 수 있었다. 사람들은 베어낼 나무에 나뭇가지를 기대어 놓았다가 다른 나무로 옮기거나, 나무를 베자마자 그 자리에 곧바로 또 다른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나무의 정령을 다른 나무로 옮겨 가게 했다. 그런 조심스러움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은 것은 분명하다.

많은 공동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무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나무나 관목을 정하고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 그 밑에 제물을 바쳤다. 키쿠유 사회에서는 이런 나무 가운데 하나가 무구모라 불리는 ㉠무화과나무였다. 모든 무화과나무가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키쿠유 제사장들은 무화과나무가 있는 곳에서만 제의를 올렸다. 제의가 열리 무화과나무와 그 주변은 신성한 곳이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집 가까이에 있는 무화과나무 근처에서는 땀감으로 쓸 잔가지를 주워 오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 나무는 ‘하느님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무화과나무를 하느님의 나무로 인식하는 데는 일종의 생태학적 추론이 뒷받침된다. 깊이 뺨은 무화과나무 뿌리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고 순환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한다. 따라서 무화과나무를 죽이거나 해치면, 흙이 불안정해지고 물의 저장과 방출이 어려워진다. 무화과나무를 약재나 식량으로 이용해 왔을 많은 사람이, 때때로 겪어야 했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왕가리 마타이, 이수영 옮김, 「지구를 가꾼다는 것에 대하여」

(나)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근사한 날이었다! 키오자 맞은편에 있는 펠레스트리나를 방문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곳에 ‘무라치’라고 하는, 바다에 맞서는 거대한 방벽을 건설 중이다. 사람들은 돌 블록으로 이 방벽을 쌓고 있다. 이것은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는,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협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연안은 오래된 자연의 산물이다. 먼저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에 이어서 태곳적 바다의 수면이 점차 낮아진 결과, 아드리아해의 위쪽 끝부분에 광활한 늪이 형성되

었다. 그 높은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지만 썰물 때에는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인간의 기술은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접수했으며, 그리하여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섬으로 에워싸인 ㉡ 베네치아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은 썰물 때에도 주요 지점에 전함을 댈 수 있도록 늪에다 깊은 운하를 준설하였다.

옛날 사람들이 지혜와 노력으로써 고안해 내고 실행한 것을, 이제는 현재의 우리가 그에 못지않은 지혜와 노력으로써 보존해야 할 것이다. 기다란 띠 모양의 물인 리도는 연안 호수를 바다와 갈라놓고 있는데,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뿐이다. 하나는 카스텔로 근처에 있고 또 하나는 그 맞은편 끝인 키오자 근처에 있다. 밀물은 보통 하루에 두 번씩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썰물도 하루에 두 번씩 나간다.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밀물 때에는 안쪽의 늪지대가 침수되는데, 가장 높은 곳은 물에 젖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그 존재가 눈에 보인다.

그러나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지협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리도와 펠레스트리나, 산피에트로 등지의 작은 마을들이 침수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바닷물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삼켜 버려 그곳의 소통로도 막혀 버릴 것이다. 리도는 섬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협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이미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파도가 유난히 높을 때는 바닷물이 단 두 곳으로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곳은 막혀 있다는 사실이 무척 다행스럽다. 아무리 맹렬하게 밀고 들어오려고 해도 바닷물은 들어올 수 없고, 몇 시간 후면 다시 썰물의 법칙에 따라 행위를 누그러뜨린다.

어쨌든 베네치아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베네치아를 천 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고, 그들은 또 운하를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괴테, 박영구 옮김,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관양고등학교 (경기)

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지혜와 노력으로 지켜내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은 산사태를 예방하며,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모든 케냐인에게 ‘하느님의 나무’로 인식되었으며, 제의(祭儀)의 공간으로 여겨졌다.
- ④ ㉡은 사람들이 기술, 노력, 비용 등을 들여 적극적으로 건설

한 도시이다.

- ⑤ ㉠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뿐이며, 다른 지협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관양고등학교 (경기)

2. (나)를 읽고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기후변화의 역습’
 …베네치아 최악 물난리에 1조3천억 원 피해
 이탈리아 비상사태 선포…산마르코 대성당 등 철수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난 물난리를 겪고 있다. 이미 이탈리아 정부가 베네치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00만유로 예산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네치아 조수 수위가 또다시 상승하며 일부가 침수됐다. 일주일 새 3번째 침수다. 로이터통신은 “베네치아에서 1872년 조수 수위 측정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한 주”라고 전했다. 이번 침수로 인해 산마르코 대성당을 포함한 유서 깊은 건축물과 예술품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 ① 바닷물이 모든 것을 삼켜버려 작은 마을들이 침수되고 소통로가 막히는 상황이겠군.
- ② 이제는 더 이상 작가의 말처럼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전혀 아니게 되었군.
- ③ 인간이 이미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군.
- ④ 작가는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이 이미 구축해 놓은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군.
- ⑤ 밀물과 썰물이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일 수 있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00년대 초 숲이 우거져 있던 케냐의 고원 지대는 토질이 뛰어나 농작물 생산량이 풍부했고 비교적 인구 밀도가 높았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드넓은 보존림을 가꾸었는데, 그

곳에는 코끼리와 표범, 물소, 그 밖에 다른 동물들이 수없이 많이 살았다. 케냐 사람들은 이 보존림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나무를 베었지만, 관습적으로 덤불이 자란 곳이나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곳 위주로 집을 짓거나 거기서 땀감을 구했을 뿐 더 크고 곧은 나무들에는 손대지 않았다.

(나) 케냐 사람들이 크고 곧은 나무를 보호한 데에는 나무에 정령이 깃들고 있다는 믿음 또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키쿠유 사람들은 베어지지 않고 서 있는 나무를 ‘숲의 별목에 저항하는 나무’라는 뜻인 무레마키리티라 불렀으며, 베어진 나무들의 정령이 이 나무들에 깃들었다고 여겼다. 그리고 정령이 다른 나무로 옮겨 간 뒤에야 이 나무들을 벨 수 있었다. 사람들은 베어낼 나무에 나뭇가지를 기대어 놓았다가 다른 나무로 옮겨거나, 나무를 베자마자 그 자리에 곧바로 또 다른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나무의 정령을 다른 나무로 옮겨 가게 했다. 그런 조심스러움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은 것은 분명하다.

(다) 많은 공동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무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나무나 관목을 정하고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 그 밑에 제물을 바쳤다. 키쿠유 사회에서는 이런 나무 가운데 하나가 무구모라 불리는 무화과나무였다. 모든 무화과나무가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키쿠유 제사장들은 무화과나무가 있는 곳에서만 제의를 올렸다. 제의가 열리 무화과나무와 그 주변은 신성한 곳이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집 가까이 있는 무화과나무 근처에서는 땀감으로 쓸 잔가지를 주워 오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 나무는 ‘하느님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라) 무화과나무를 하느님의 나무로 인식하는 데는 일종의 생태학적 추론이 뒷받침된다. 깊이 뺨은 무화과나무 뿌리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고 순환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한다. 따라서 무화과나무를 죽이거나 해치면, 흙이 불안정해지고 물의 저장과 방출이 어려워진다. 무화과나무를 약재나 식량으로 이용해 왔을 많은 사람이, 때때로 겪어야 했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서울)

3. 케냐 사람들이 나무를 보호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드넓은 보존림을 가꾸었기 때문에
- ② 나무에 정령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 ③ ‘무레마키리티’라 불리는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 ④ 크고 곧은 나무를 베자마자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 ⑤ 덤불이 자란 곳이나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곳에서 땀감을 구했기 때문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서울)

4.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모든 나무가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케냐 사람들은 주로 나무가 적은 곳에 집을 지었다.
- ③ 무레마키리티는 '숲의 별목에 저항하는 나무'라는 뜻이다.
- ④ 제의가 열린 무화과나무와 그 주변도 신성한 곳이 되었다.
- ⑤ 키쿠유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무화과나무를 숭배하였다.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서울)

5. 위 글에서 나무를 숭배하는 생태학적인 이유를 찾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류 문명이 시작된 뒤로 ㉠나무는 식량과 약재, 건축 재료였을 뿐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신과 연결되는 장소였다. 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생명체 가운데 하나이므로, 인류가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정한 종류의 나무들은 영적으로 중요하다. 가나 남부의 많은 공동체는 백단향과 이 로코, 리아나를 성스럽게 인식한다. 특히 가나코란자와 말라위 일대에 있는 신성한 숲들과 요루바족 여신 오순에게 바쳐진 나이지리아 오쇼그보 근처의 숲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유네스코에서 세계 유산으로 지정했다.

나무가 주는 그늘과 공간의 영적 울림 때문에 나무는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나무 아래 모여 앞일을 의논하고, 찬반이 갈리는 문제에 관해 부족 어른이 판단을 내리고는 한다. 따라서 특정한 나무가 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키쿠유족은 자녀 양육이 끝난 사람들을 공동체 생활 양식의 수호자이자 지혜로운 후견인으로 여겼다. 따라서 그들의 중재자이자 판관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부족의 어른 자리에 앉아 시이기나무 막대를 쥐고 있었다. 그것은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표시였다. 이런 관례는 평화 협정에 조인하는 것만큼이나 구속력을 지녔고, 공동체 내부에서 그리고 공동체끼리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신성한 숲과 그 나무와 숲에 부여된 영적이고도 상징적인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나무는 언제나 우리의 동반자였다.

(중략)

사펠리나무에서 나온 목재의 절반 이상이 연기로 사라진다는 사실에 나는 당혹스러웠다. 그 나무는 베어져 쓰러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비바람을 견디고 빗물에 흠뻑 젖고, 건기에도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지에는 온갖 종류의 곤충들이 살았다. 가끔 가지가 한두 개쯤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 동물과 새들이 몸통에 구멍을 뚫거나 속을 파먹을 수도 있지만 나무는 썩 없이 자라났다. 하지만 이제 그 나무는 없다. 살아 있기보다는 죽어야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길러야 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자연, 특히 야생의 모습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채운다. 우리가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보살피려면 그것과 직접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 자연을 보고 냄새 맡고 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을 잃을 것이고, 우리 영혼도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요즘 아이들은 자연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나무 한 그루 심어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을 즈음에는 이미 때가 늦었을 것이다. 신성한 숲은 한번 사라지면 결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근사한 날이었다! 키오자 맞은편에 있는 펠레스트리나를 방문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곳에 '무라치'라고 하는, 바다에 맞서는 거대한 방벽을 건설 중이다. 사람들은 돌 블록으로 이 방벽을 쌓고 있다. 이것은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는,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협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연안은 오래된 자연의 산물이다. 먼저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에 이어서 태곳적 바다의 수면이 점차 낮아진 결과, 아드리아해의 위쪽 끝부분에 광활한 늪이 형성되었다. 그 늪은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지만 썰물 때에는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인간의 기술은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접수했으며, 그리하여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섬으로 에워싸인 베네치아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은 썰물 때에도 주요 지점에 전함을 댈 수 있도록 늪에다 깊은 운하를 준설하였다.

옛날 사람들이 지혜와 노력으로써 고안해 내고 실행한 것을, 이제는 현재의 우리가 그에 못지않은 지혜와 노력으로써 보존해야 할 것이다. 기다란 띠 모양의 물인 리도는 연안 호수를 바다와 갈라놓고 있는데,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뿐이다. 하나는 카스텔로 근처에 있고 또 하나는 그 맞은편 끝인 키오자 근처에 있다. 밀물은 보통 하루에 두 번씩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썰물도 하루에 두 번씩 나간다.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밀물 때에는 안쪽의 늪지대가 침수되는데, 가장 높은 곳은 물에 젖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그 존재가 눈에 보인다.

그러나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지협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리도와 펠레스트

리나, 산피에트로 등지의 작은 마을들이 침수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바닷물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삼켜 버려 그곳의 소통로도 막혀 버릴 것이다. 리도는 섬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협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이미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파도가 유난히 높을 때는 바닷물이 단 두 곳으로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곳은 막혀 있다는 사실이 무척 다행스럽다. 아무리 맹렬하게 밀고 들어오려고 해도 바닷물은 들어올 수 없고, 몇 시간 후면 다시 썰물의 법칙에 따라 행위를 누그러뜨린다.

어쨌든 베네치아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베네치아를 천 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고, 그들은 또 운하를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서울)

6.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상대방에게 피력하고 있다.
- ② (가)는 문제를 제기한 후 그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③ (나)는 역사적 사건을 분석하여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한 조사 내용을 차이점 위주로 정리하여 보고하고 있다.
- ⑤ (가)는 아프리카 여행을 (나)는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체험하고 느낀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서울)

7. 위 글의 글쓰기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글쓰기는 (나)와 달리 자연을 점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② (나)의 글쓰기는 (가)와 달리 자연을 이용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 ③ (가)의 글쓰기는 (나)와 달리 자연을 인간의 정신세계와 깊숙이 연관시키며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④ (나)의 글쓰기는 (가)와 달리 자연의 원래 모습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⑤ (가)와 (나)의 글쓰기는 자연이란 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자연을 개발하고 지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서울)

8. 위 글 ㉠과 <보기>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무가 주는 기쁨과 위안이란 결코 낮춰 생각할 것이 아니다. 살구, 복숭아, 매화, 진달래, 개나리, 장미, 모란, 모두 아롱다롱 울긋불긋 곱고 다채로워 사람의 눈을 끌고 마음을 빼내는 데가 있으나, 초록 일색의 나무가 갖는 은근하고 흐뭇하고 건전한 풍취에 비하면 어딘지 얇고 옅고 야한 데가 있다. 상나무, 사철나무, 썩, 도토리, 버들, 솔, 잣, 해, 느티 - 우리 동리에서 볼 수 있는 나무로서 앞서 말한 꽃에 비하여 손색이 있을 것이 없다. 또, 모든 나무는 각기 고유한 모습과 풍취를 가진 것이어서 그 우열을 가리고 청탁을 말한 바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 가까운 신변에 이 때가 되면 오래 보지 못한 친구를 찾듯이 돌아다니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특히 찾아보고 즐기는 몇 그루의 나무를 가졌다.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는 내 집의 한 포기 모란이 활짝 피었다 지는 무렵, 온 남산을 가리고 하늘 한 귀퉁이를 차지하게 되는 앞집 개쫓나무다. 참말로 잘생긴 나무다. 흰칠하니 높다란 키에 부챗살 모양으로 죽죽 뻗은 미끈한 가지가지에 채통치고는 좀 자잘한 잎새를 수없이 달았다. 보아서 조금도 구김새가 없고 거칠매가 없다. 어느 모로 보나 대인 군자의 품모다. 바람 자면 고요히 깊은 명상에 잠기고, 잔바람 일면 명상에서 깨어 잎새 나뭇거리며 끊임없이 미소 짓고, 바람이 조금 세차면 가지가지를 너울거리며 온 나무가 춤이 된다.

아침 산보 오고 가는 길에 매양 볼 수 있는 친구는 길가 두 집에 이웃하여 나란히 서 있는 두 그루의 히말라야 오르 나무다. 허구한 세월 히말라야 높은 준령의 거센 바람에 인종해 온 먼 조상의 유전인지, 가지가 위로 뻗지 않고 아래로 숙였다. 검고 줄기찬 줄기와 가지에는 어울리지 않게 보드랍고 가느다란 잎새가 소복소복 떨기를 지어 달렸다. 어떻게 보면 가지마다 고양이 한두 마리씩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 같고, 가지 끝마다 싹터 나오는 새 잎새는 고양이 발톱 같다. 심지어 몇 해나 되는 나무인지 아직 두 서너 길밖에 되지 못하나 활짝 늘어져 퍼진 가지들이 너그러운 품이 이미 정정한 교목(喬木)의 풍도(風度)를 갖추고 있다.

- 이양하, <나무의 위의>

- ① ㉠은 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다.
- ② ㉡은 다채로운 모습은 없지만 은근한 품위를 지니고 있다.
- ③ ㉠을 심는 경험은 우리가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보살피려는 마음을 일깨운다.
- ④ ㉡의 속성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유추할 수 있다.
- ⑤ ㉠과 ㉡은 모두 오랫동안 인간과 교류하며 공동체 수호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00년대 초 숲이 우거져 있던 케냐의 고원 지대는 토질이 뛰어나 농작물 생산량이 풍부했고 비교적 인구 밀도가 높았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드넓은 보존림을 가꾸었는데, 그곳에는 코끼리와 표범, 물소, 그 밖에 다른 동물들이 수없이 많이 살았다. 케냐 사람들은 이 보존림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나무를 베었지만, ㉠관습적으로 덤불이 자란 곳이나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곳 위주로 집을 짓거나 거기서 땔감을 구했을 뿐 더 크고 곧은 나무들에는 손대지 않았다.

케냐 사람들이 크고 곧은 나무를 보호한 데에는 나무에 정령이 깃들여 있다는 믿음 또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키쿠유 사람들은 베어지지 않고 서 있는 나무를 ‘숲의 벌목에 저항하는 나무’라는 뜻인 무레마키리티라 불렀으며, 베어진 나무들의 정령이 이 나무들에 깃들었다고 여겼다. 그리고 정령이 다른 나무로 옮겨 간 뒤에야 이 나무들을 벨 수 있었다. ㉡사람들은 베어낼 나무에 나뭇가지를 기대어 놓았다가 다른 나무로 옮기거나, 나무를 베자마자 그 자리에 곧바로 또 다른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나무의 정령을 다른 나무로 옮겨 가게 했다. 그런 조심스러움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은 것은 분명하다.

많은 공동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무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나무나 관목을 정하고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 그 밑에 제물을 바쳤다. 키쿠유 사회에서는 이런 나무 가운데 하나가 무구모라 불리는 무화과나무였다. 모든 무화과나무가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키쿠유 제사장들은 무화과나무가 있는 곳에서만 제의를 올렸다. 제의가 열리 무화과나무와 그 주변은 신성한 곳이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집 가까이에 있는 무화과나무 근처에서는 땔감으로 쓸 잔가지를 주워 오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이르렀다. 그 나무는 ‘하느님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무화과나무를 하느님의 나무로 인식하는 데는 일종의 생태학적 추론이 뒷받침된다. 깊이 뺨은 무화과나무 뿌리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고 순환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한다. 따라서 무화과나무를 죽이거나 해치면, 흙이 불안정해지고 물의 저장과 방출이 어려워진다. 무화과나무를 약재나 식량으로 이용해 왔을 많은 사람이, 때때로 겪어야 했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왕가리 마타이, 이수영 옮김, 「지구를 가꾼다는 것에 대하여」

(나) 베네치아에서 무엇보다도 내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민중이다. 필연적이고 무의식적인 존재인 거대한 대중 말이다. 이들 일족은 재미 삼아 이 섬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하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고난이 가져다준 교훈에 따라 그들은 가장 불리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점이 되었고, 북쪽의 전 지역이 여전히 암흑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현명하게 대처했다. 따라서 그들이 번창하고 부유해진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점차 집들이 뻥뻥이 들어서고, 모래땅과 늪지는 암석처럼 단단한 지반으로 바뀌어 갔다. 집들은 조밀하게 심어진 나무들처럼 높이 솟구쳤다. 옆으로 확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람이란 마땅히 한치의 땅이라도 탐이 나는데, 처음부터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도, 양편의 집들을 분리하고 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폭으로밖에 내지 않았다. 어쨌거나 그들에게는 물이 거리와 광장과 산책로를 대신했다. (중략)

연안은 오래된 자연의 산물이다. 먼저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에 이어서 태곳적 바다의 수면이 점차 낮아진 결과, 아드리아해의 위쪽 끝부분에 광활한 늪이 형성되었다. 그 늪은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지만 썰물 때에는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인간의 기술은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점수했으며, 그리하여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섬으로 에워싸인 베네치아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은 썰물 때에도 주요 지점에 전함을 댈 수 있도록 늪에다 깊은 운하를 준설하였다.

옛날 사람들이 지혜와 노력으로써 고안해 내고 실행한 것을, 이제는 현재의 우리가 그에 못지않은 지혜와 노력으로써 보존해야 할 것이다. 기다란 띠 모양의 물인 리도는 연안 호수를 바다와 갈라놓고 있는데,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뿐이다. 하나는 카스텔로 근처에 있고 또 하나는 그 맞은편 끝인 키오자 근처에 있다. 밀물은 보통 하루에 두 번씩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썰물도 하루에 두 번씩 나간다.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밀물 때에는 안쪽의 늪지대가 침수되는데, 가장 높은 곳은 물에 젖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그 존재가 눈에 보인다.

그러나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지협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리도와 펠레스트리나, 산피에트로 등지의 작은 마을들이 침수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바닷물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삼켜 버려 그곳의 소통로도 막혀 버릴 것이다. 리도는 섬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협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이미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 괴테, 박영구 옮김,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9.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케냐의 크고 곧은 나무를 보존할 수 있게 만든 관습이다.
- ② ㉡은 나무의 정령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유지하려는 행동이다.
- ③ ㉢은 잔가지를 쬐는 행위가 무화과 나무의 생태학적 역할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은 과거에 유리한 지역이 그들에게 고난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 ⑤ ㉠은 늪지대에 세워진 베네치아가 인간의 기술에 의한 것임을 말해준다.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10. (나)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 ① 도시 베네치아의 지리적 특성
- ② 늪 위에 탄생한 베네치아의 형성 과정
- ③ 베네치아에 정착한 민중들에 대한 괴테의 평가
- ④ 호수와 바다를 갈라놓는 리도와 바닷물이 드나드는 통로
- ⑤ 다른 지역민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된 베네치아 민중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11. (가)의 필자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보기>와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

<보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베이컨의 말은 곧 자연의 법칙이나 원리를 알게 되면 그것을 활용하여 자연을 지배하고 개발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자연이란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최대한 개발하고 지배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 손철성, 「베이컨의 신기관」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12.

- (1) (나)에서 필자의 자연관이 드러난 문장을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 (2) <보기>를 활용하여 (나) 필자의 자연관이 합리적인지 논하시오.

<보기>

문화 상대주의 논쟁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은 합리적 동물인가? 만약 그렇다면 합리성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합리성의 기준과 내용이 서로 다른가?

결론부터 말하면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행동 환경은 아주 다르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지만 그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와 욕망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합리적인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1900년대 초 숲이 우거져 있던 케냐의 고원 지대는 토질이 뛰어나 농작물 생산량이 풍부했고 비교적 인구 밀도가 높았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드넓은 보존림을 가꾸었는데, 그곳에는 동물들이 수없이 많이 살았다. 케냐 사람들은 이 보존림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나무를 베었지만, 관습적으로 덤불이 자란 곳이나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곳 위주로 집을 짓거나 거기서 땀감을 구했을 뿐 더 크고 곧은 나무들에는 손대지 않았다.

케냐 사람들이 크고 곧은 나무를 보호한 데에는 나무에 정령이 깃들었다는 믿음 또한 영향을 미쳤다. (중략) 그리고 정령이 다른 나무로 옮겨 간 뒤에야 이 나무들을 벨 수 있었다. (중략) 그런 조심스러움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은 것은 분명하다. (중략)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집 가까이에 있는 무화과나무 근처에서는 땀감으로 쓸 잔가지를 주워 오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 나무는 ‘하느님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4-(2) 내가 찍고 싶은 사진

1.① 2.② 3.⑤ 4.③ 5.④ 6.④ 7.② 8.③ 9.⑤ 10.①
11.② 12.④ 13.④ 14.① 15.④ 16.② 17.① 18.② 19.
③ 20.① 21.① 22.③ 23.④ 24.④ 25.⑤ 26.⑤ 27.⑤
28.① 29.⑤ 30.① 31.③ 32.③ 33.내면의 본질적 생
명력,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나에게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순간 34.③ 35.① 36.① 37.① 38.찍는
사람의 모든 역량이 기본적인 조건이며, 여기에 자신
이 곧 사진이 되는 일체감이 더해져야 한다. 39.겉내
지 말고 사람을 찍어야 하고 사람에 대해 애정을 가
지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

4-(3)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

1.(1) ㉠ 풍자 (2) ㉡ 3인칭 관찰자 (3) 규중 부인이 자
신들의 옷을 만드는 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2.자신의
공을 들어 아첨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를 편애하는
당시의 사회 지배층을 풍자한다. 3.④ 4.⑤ 5.(1) 자신
에게 아첨하는 자를 편애하는 모습을 통해 당대 사
회 지배층을 풍자하고 있다. (2) 유교 사상의 기본인
장유유서를 바탕으로 연령이 높은 사람을 존중한다.
6.③ 7.① 8.⑤ 9.⑤ 10.⑤ 11.① 12.⑤ 13.④ 14.⑤
15.③ 16.④ 17.③ 18.① 19.(1) (a) 미망인, (b) 동거지
정 (c) 너 (d) 영결 (2) 이 글은 미망인인 글쓴이가
동거지정을 느끼며 너라고 부르던 바늘이 부러져 바
늘을 영결하듯 떠나보내는 비통한 심정을 드러낸 수
필이다. 20.① 21.② 22.⑤ 23.척부인은 자, 교두 각시
는 가위, 세요 각시는 바늘, 인화는 인두, 울낭자는
다리미, 감투 할미는 골무를 의인화 한 것이다. 24.②
25.③ 26.④ 27.⑤ 28.(1) 바늘 (2) 자 (3) 가위 (4)
인두 (5) 다리미 (6) 실 (7) 골무 29.진주 열 그릇이라
도 꿰 후에 구슬이라 한다. 30.④ 31.⑤ 32.③ 33.②
34.① 35.㉠ 경쟁 ㉡ 협력 ㉢ 이기적인 세태 36.⑤
37.② 38.④ 39.③ 40.⑤ 41.③ 42.② 43.① 44.㉠ 필
묵과 종이, 벼루 ㉡ 바늘 ㉢ 자 ㉣ 가위 ㉤ 인두 ㉥
다리미 ㉦ 실 ㉧ 골무 45.③ 46.② 47.① 48.⑤ 49.②
50.⑤

5-(1)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소비자 잉여

1.④ 2.③ 3.③ 4.③ 5.㉠ 독점해서 판매하지 않을 때
㉡ 정확히 알 수 없어 상품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
기 ㉢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6.①④ 7.③ 8.㉠ 17000
㉡ 윤선 9.㉠ 표면적 측면: 2만 파운드의 상금을 받았
지만 여행 경비 등으로 거의 다 사용했기 때문에 '금

전적 소득'은 거의 얻지 못했다. ㉡ 이면적 측면: 수없
이 많은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었고, 평생 함께할
동반자인 '아우디 부인을 만나 결혼 약속'을 하게 되
었다. 10.⑤ 11.① 12.④ 13.② 14.① 15.③ 16.⑤ 17.
④ 18.② 19.③ 20.(1) A소비자: 지불 용의 가격-2000
원, 소비자 잉여: 1000원, B소비자: 지불 용의 가격-
1500원 소비자 잉여- 500원, 소비자 잉여가 큰 A가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 (2) 상품의 공급자는 상품을
독점해서 판매하지 않으며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상품의 공급자는 모든 소
비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소비자
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소비자가 시
장을 이용한다. 21.③ 22.① 23.⑤ 24.④ 25.세계 일
주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했을 체험과 아우
디 부인과 결혼 약속을 얻게 되었다. 26.㉠ 낮아진다.
㉡ 많아지기 27.③ 28.③ 29.④ 30.⑤ 31.A소비자는
1000원의 소비자 잉여를, B소비자는 500원의 소비자
잉여를 얻게 된다. 32.① 33.① 34.④ 35.지불 용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는 가격이고, 소비자 잉여란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
제 가격을 뺀 것이다. 명지 어머니의 지불 용의 가격
은 5000원이며, 소비자 잉여는 2000원이다 36.소비
자 잉여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
했던 가격인 지불용의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
을 뺀 금액이다 37.⑤ 38.② 39.① 40.⑤ 41.② 42.④
43.역경매는 구매자가 최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낙찰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는 지불 용의 가격보다 낮
은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여 높은 소비자 잉여를 누
린다. 44.① 45.④ 46.③ 47.④ 48.① 49.② 50.④ 51.
⑤ 52.③ 53.⑤ 54.(1) 포그의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은 다른 일반 여행객들보다 매우 높은 수
준 (2) 경제학적으로 볼 때 금전적 소득은 거의 없었
으나, 다양한 체험과 평생의 동반자를 얻었다는 점에
서 나름의 소비자 잉여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5-(2) 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

1.③ 2.⑤ 3.④ 4.③ 5.⑤ 6.① 7.③ 8.④ 9.① 10.③
11.② 12.① 13.⑤ 14.⑤ 15.② 16.⑤ 17.① 18.② 19.
① 20.④ 21.③ 22.③ 23.② 24.② 25.② 26.② 27.⑤
28.⑤ 29.⑤ 30.③ 31.③ 32.② 33.② 34.④ 35.㉠는
㉡, ㉢는 ㉣과 유사하다. ㉠와 ㉡는 효과적으로 말과
소를 이용하려는 점이, ㉢와 ㉣은 위생적인 목적에서

금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유사하다. 36.① 37.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활동에 적당한 인구수 및 가축 수와 그 분배, 더 나아가서는 부족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 38.④ 39.① 40.경제 관념: 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여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재산을 소비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종교 관념: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환생과 업보와 자비를 통해 공덕을 쌓는 불교 신념을 실천한다. 41.③ 42.② 43.④ 44.비인간적인 명나라의 문화인 전족을 찬양하는 모습에서 문화적 사대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청나라 여자는 발이 커서 남자의 발같'다고 하며 한족 여자의 발과 비교하는데, 한족 여자의 발은 작지만 '그렇다고 웃지마라. 명나라가 끼친 제도 저 계집의 발 한가지 지금까지 볼 것 있다.'라고 하며 명나라 문화가 남아있는 한족 여성의 전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45.① 46.③ 47.⑤ 48.④ 49.③ 50.② 51.⑤ 52.④

5-(3)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1.③ 2.⑤ 3.④ 4.⑤ 5.산사태를 예방하고,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고 순환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한다. 6.① 7.③ 8.⑤ 9.③ 10.⑤ 11.(가)의 필자는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보살피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 <보기>는 자연을 지배하고 개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자연을 개발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로 보는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을 드러내고 있다. 12.(1) 그래서, 것이다. (2) (나)의 필자 자연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베네치아의 환경적 상황에서는 자연을 개발한 것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13.⑤ 14.② 15.④ 16.④ 17.② 18.① 19.④ 20.⑤ 21.② 22.① 23.⑤ 24.③ 25.⑤ 26.㉠ 베네치아 석호의 습지대 ㉡ 마을을 건설하기 위해서이다.㉢ 벌목한 떡갈나무를 바닷속 점토층에 박았고, 이 나무 말뚝 위에 건물 기초를 놓았다. 27.윗글에서 찾을 수 있는 기행문의 요소는 '여정, 견문, 감상'이고 밑줄 친 ㉣는 견문에 속한다. 28. 그리고

6-(1) 세계속의 1등, 양궁

1.(1) 각각에 작용하는 두 힘이 클수록, 두 힘이 작용하는 사이의 각이 작을수록 힘의 합력은 커진다. (2) 화살의 힘과 바람의 힘이 나란하지 않는 경우 2.①

② 3.㉠: ㉠ 방향 ㉡ 원래 힘 보다 세게 한다. 4.② 5.③ 6.① 7.② 8.③ 9.⑤ 10.설명문, 양궁에 적용되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11.① 12.③ 13.④ 14.④ 15.② 16.⑤ 17.② 18.③ 19.④ 20.(1) 1차 시기: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었다. 2차 시기: 바람이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었다. (2) 오조준 지점은 B이며, 활시위를 당기는 힘의 세기는 원래 쏘려던 힘보다 약하게 해야 한다. 21.④ 22.㉠은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면서 또 위에서 아래로 향할 때, ㉡은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면서 또한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경우이다. 23.③ 24.② 25.② 26.오조준 지점은 B이며, 활시위를 당기는 힘의 세기는 원래 쏘려던 힘보다 약하게 해야 한다. 27.작용하는 힘이 서로 반대인 두 힘의 합력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값이며, 합력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과 같다. 28.③ 29.③ 30.⑤ 31.⑤ 32.① 33.③ 34.④ 35.③ 36.① 37.⑤ 38.③ 39.기술의 힘을 빌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각 나라의 경제력에 따라 사용하는 장비가 달라져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불공정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40.⑤ 41.① 42.① 43.② 44.시위를 떠난 화살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과 바람의 힘이 합쳐질 때, 화살은 두 힘의 합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날아간다. 45.② 46.④ 47.바람이 선수의 뒤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불고 있다. 활시위를 당기는 힘의 세기는 원래 쏘려던 힘보다 약하게 해야 한다. 48.⑤ 49.③ 50.① 51.③ 52.③ 53.오조준 지점은 D이며, 활시위를 당기는 힘의 세기는 원래 쏘려던 힘보다 쏘려던 힘보다 강하게 해야 한다. 54.③ 55.반대 의견 제시 및 반론

6-(2) 인공지능의 미래, 딥 러닝

1.④ 2.② 3.① 4.⑤ 5.④ 6.③ 7.② 8.② 9.⑤ 10.⑤ 11.④ 12.③ 13.③ 14.④ 15.① 16.① 17.① 18.④ 19.③ 20.① 21.② 22.⑤ 23.⑤ 24.① 25.과학적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인공 지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6.④ 27.⑤ 28.② 29.③ 30.⑤ 31.① 32.③ 33.③ 34.③ 35.② 36.② 37.② 38.③ 39.④ 40.② 41.④ 42.② 43.② 44. (1)100분의 2초 만에 '아기 이름 짓는 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18만개의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지었다. (2)㉠의 이유

는 인공 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45.④ 46.⑤

6-(3) 노블레스 오블리주

1.③ 2.⑤ 3.③ 4.③ 5.② 6.④ 7.① 8.② 9.④ 10.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도덕적 의무이
다. 11.② 12.② 13.(1) 칼레의 시민들이 보여 준 노블
레스 오블리주의 정신 (2) 높은 사회적 지위에 상응
하는 도덕적 의무 (3) 우리 사회의 사회 지도층이 희
생정신이나 도덕성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것에 대한 씩씩한 견해를 표현하고
있다.

- 끝 -